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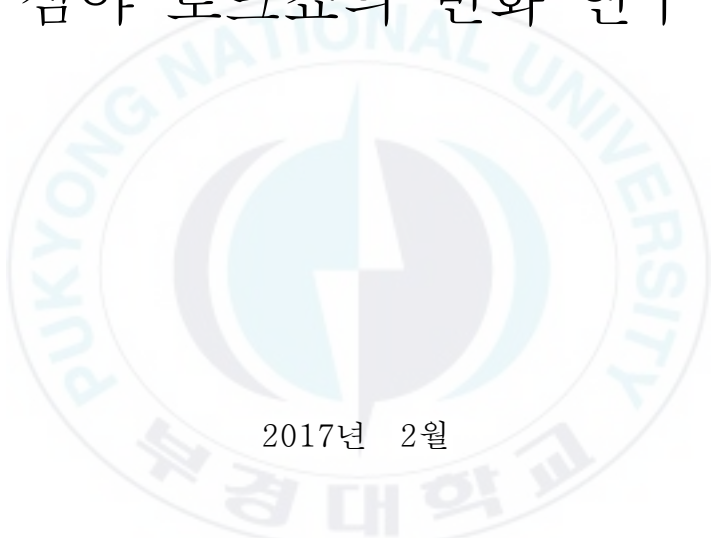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 문 방 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의 변화 연구



2017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정 혜 윤

신 문 방 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의 변화 연구

지도교수 남 인 용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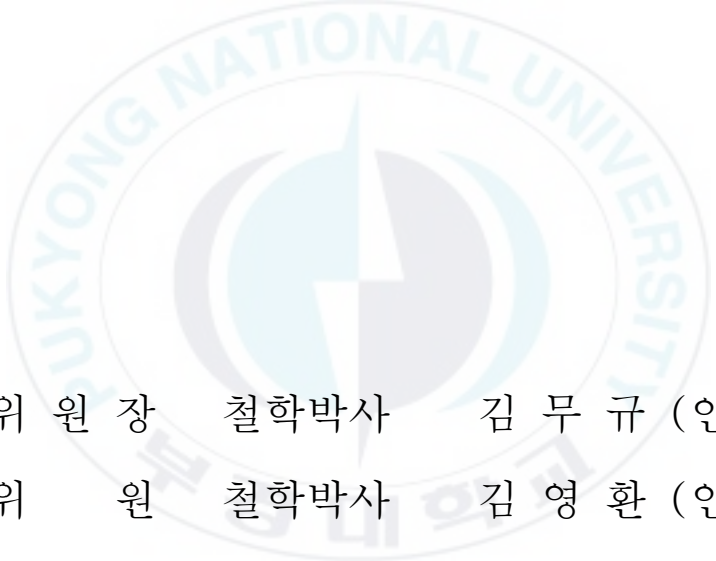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정 혜 윤

정혜윤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24일



위 원 장 철학박사 김 무 규 (인)
위 원 철학박사 김 영 환 (인)
위 원 문학박사 남 인 용 (인)

< 목차 >

제 I 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3. 논문의 구성	4
제 II 장. 이론적 논의	6
1. 토크 프로그램	6
(1) 토크 프로그램	6
(2)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11
(3) 토크쇼 패널	14
(4) 토크쇼 구성	15
(5) 토크쇼 주제	16
(6) 토크쇼 영상	17
2. 토크쇼와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에 관한 기존 연구	19
3. 지상파 심야 토크쇼의 역사적 변천	23
(1) 1980년대	23
(2) 1990년대 전반(1990-1995)	27
(3) 1990년대 후반(1996-2000)	30
(4) 2000년대	34
제 III 장. 연구결과	41

1. 연구문제	41
2. 연구방법	42
(1) 조사절차	43
(2) 분석유목	43
3. 방송사별 심야 토크쇼의 현황	44
(1) KBS	44
(2) MBC	58
(3) SBS	65
(4) JTBC	65
(5) MBN	89
(6) 채널A	103
(7) TV조선	114
4. 종편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의 변화	124
(1) 토크쇼	124
(2) 출연진	127
(3) 구성	130
(4) 주제	131
(5) 영상	134
5. 변화 요인	134
(1) 시대상황적 요인	135
(2) 내용적 요인	138
(3) 기술적 요인	139
(4) 방송환경 요인	141

제Ⅳ장. 결론 및 논의	144
1. 결론 및 요약	144
2. 한계점 및 제언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8



<표 목록>

<표 1> 토크 프로그램의 기능	9
<표 2> 1980년대 토크쇼	24
<표 3> 1990년대 전반(1990-1995) 토크쇼	28
<표 4> 1990년대 후반(1996-2000) 토크쇼	31
<표 5> 2000년대 토크쇼	34
<표 6> 2016년 9월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 토크 프로그램	42
<표 7> 토크 프로그램 분석 유목	43
<표 8>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45
<표 9>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47
<표 10>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49
<표 11>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50
<표 12> KBS의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52
<표 13>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58
<표 14>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59
<표 15>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61
<표 16>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61
<표 17>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63
<표 18>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65
<표 19>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69
<표 20>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72
<표 21>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75
<표 22>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78
<표 23>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89

<표 24>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92
<표 25>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94
<표 26>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97
<표 27>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99
<표 28>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103
<표 29>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105
<표 30>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107
<표 31>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109
<표 32>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110
<표 33>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114
<표 34>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116
<표 35>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118
<표 36>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119
<표 37>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120

국문 초록

텔레비전 속 사회와 현실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사회생활을 반영하여 제작되는 것을 넘어서 반대로 사회의 모습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특성이 밝혀진지 오래인 것이다. TV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정 시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말은 현재의 TV 프로그램을 분석해봄으로 인해 현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미디어 시장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현 미디어 시장의 급변 원인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발전하는 미디어 기술, 세분화되어가는 소비자들의 욕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미디어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각 방송사들은 새로운 얼굴의 출연진을 발굴해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장르의 특성을 혼합시킨 프로그램들을 배출해내는 것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등장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TV 환경 속에서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 많은 변화를 겪어내고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여러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꼽아보자면 토크쇼를 들 수 있다. 토크쇼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저렴한 제작비와 보다 쉬운 제작 방법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토크쇼는 시청자들에게 있어서도 친근하고 쉬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청하기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생 방송인 종합편성채널에 있어서 토크쇼가 여러 개 편성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심야토크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TV 토크쇼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 특성상 사회상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TV 토크쇼를 살펴보면 타 장르의 프로그램보다 그 시대 상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이 방영되기 시작한지 약 5년이 지난 현재, 각 방송사의 토크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이슈, 심야 토크쇼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I 장. 서론

1. 문제제기

2016년, 시사저널에서 매년 주관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인 JTBC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에 올랐다.¹⁾ 2011년 12월 1일, 종편이 개국하고 약 5년만이다. 당초 종편 출범에 있어 보수 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방송 사업에 진출함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새로운 채널의 등장으로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있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로그램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선입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편 출범 후, 채널의 다양화가 일어나며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상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종편은 후발주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채널의 다양성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

1) 안성모(2016. 09. 13). [201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 신뢰도 JTBC, 영향력 KBS. 시사저널, 참조,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7632>

상파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 장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예능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보다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에 대응해 종편에서는 새로운 얼굴의 출연자들과, 그동안 방송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기존 출연자들이 대거 합류해 참신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로맨스가 주가 되는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제작·편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며 하루가 달리 변화하는 방송 시장 환경 속에서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토크 프로그램이다.

토크 프로그램은 타 장르에 비해 제작하기 쉽고, 저렴한 제작비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이다. 그로 인해 토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꾸준히 제작되어왔고, 이는 종편이 등장한 후, 지상파와 더불어 종편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듯 약간의 형식만 바꾼 토크 프로그램의 범람은 출연자에게는 기회이지만, 시청자에게는 비슷한 내용의 나열과 출연자의 중복으로 인한 식상함으로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출연하는 인물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나 매체로 인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새로움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방송사들은 토크 프로그램에 여러 방법으로 변형을 가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토크 프로그램에 있어 오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스타들의 단순 토크에서 벗어나 춤이나 노래와 같은 예능 요소를 다수 집어넣어 ‘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토크쇼에 춤이나 예능을 겸비한 버라이어티 토크쇼가 지상파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종편은 채널 차별화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정치 토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전통 뉴스 프로그램을 벗어나 보다 가벼운 형식의 예능 토크쇼에

서 사회 이슈를 다루며, 자연스럽게 보도와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혼합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편의 시도는 시사점이 있다.

위와 같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달라지자 토크 프로그램의 출연진, 구성, 주제 등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연진에 있어서는 집단 출연과 더불어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진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주제 또한 기존 지상파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앞 다투어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듯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 토크 프로그램이 여러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편 출범 이후 우리나라 심야 토크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어떤 포맷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변화 요인과 토크 프로그램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연구목적

토크 프로그램은 방송사에서 선호하는 전형적인 장르 중의 하나이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방송사로 하여금 편성 상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토크쇼에 관한 역사는 짧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토크 프로그램은 사회의 변화와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출연자들이 실제 사건이나 일화를 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토크 프로그램은 사회의 화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현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문제, 소통구조와 더불어 방송사에서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크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많은 변형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토크 프로그램의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고,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심야 토크 프로그램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시대별 TV 토크 프로그램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약 5년이 지난 2016년 현재 방영되고 있는 심야 토크 프로그램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에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한 토크 프로그램 연구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는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현황을 살핌으로써,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논문의 구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종합편성 채널 출범 이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종편이 취하고 있는 변화의 태도와 방향에 있어서 토크 프로그램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으로 출발했다. 또한, 계속해서 꾸준히 편성되어 온 토크 프로그램의 변천 과정과 토크 프로그램이 변화하게 된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토크 프로그램이 등장한 이후부터 2016년 현재 방영되고 있는 토크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토크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다양한 시간대 중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후 11시대의 심야 토크쇼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장에서는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려 했다. 따라서 토크 프로그램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토크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토크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 정리했다.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정의는 한 마디로 정의되기 어려우며, 여러 기존 연구들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였다. 또한 토크 프로그램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전 지상파의 심야 토크 프로그램 현황과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3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5년이 지난 현재의 심야 토크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송사 별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 프로그램을 선정해 프로그램의 진행자, 패널, 주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심야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심야 토크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했다.

제Ⅱ장. 이론적 논의

1. 토크 프로그램

(1) 토크 프로그램

사실상 방송자체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다른 장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며,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커뮤니케이션 욕구이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은 본인이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보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텔레비전 장르 중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토크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토크쇼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친근감을 조성하고, 소소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틀어 '토크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이는 다시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출연자의 말을 위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토크 프로그램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이슈나 쟁점을 소재로, 시사성을 띠는 프로그램은 토론 프로그램으로, 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은 '토크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는 보다 공적인

영역에 대해, 후자는 보다 사적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쇼 프로그램을 나누어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소현정(1996)은 토크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소재로 찬반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여론을 반영해 궁극적으로 진실 또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의했다.

이준복(2014)은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내에서 패널들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공론장과 유사한 모습들을 구현해 내지만, 결국 방송 토론 프로그램도 무대 위의 상황처럼 일정하게 연출되는 프로그램이며 패널들 사이의 토론은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쇼로서 제작된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무대적인 상황 위에서 진행자와 패널, 방청객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정한 쇼 혹은 연극과도 같은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방송이 상업화되면 될 수록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락성이라는 측면을 더하고, '쇼'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토크쇼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최영목(1993)은 토크쇼를 '이야기(말)를 근간으로 하여 오락제공 내지는 인간적 흥미를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로 뭔가를 보여주고자 꾸며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했다. '쇼'라는 말 자체가 '꾸며낸', 허구적 뉘앙스를 포함한 것으로, 토크쇼의 등장인물이나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한된 진실성'이라는 것이다. 설진아(2011)는 토크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생활과 신변잡기를 다루어 대중이 연예인에게 갖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으며, 임동환(1993)은 토크쇼는 기본적으로 진행자와 게스트 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생활 주변의 이야기나 화제 거리, 인생담 등 오락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적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대담/토론 프로그램과는 구별된다고 말했다. 김연희(2013)는 토크쇼에 대해 개인의 이야기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론화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방송 자체의 의미를 지닌 쇼가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청자와의 일상적 소통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지만 주제의 범위는 무한하며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표현하였다. 이렇듯 토크쇼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도 하고 웃거나 울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의사소통행위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본인이 직접 겪지 못했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기도 한다. 이렇듯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텔레비전 토크 프로그램은 특별한 제작 기술 없이도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가져온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은 방송 제작자로부터 환영받기 마련이다. 또, 토크 프로그램은 구성에 따라 패널과 특별한 세트, 소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명의 진행자와 출연자, 최소단위의 제작진만으로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토크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방송사의 가장 전형적인 프로그램 유형이자 사랑받는 장르 중의 하나다.

하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토크 프로그램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준모(2008)는 토크쇼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대가를 초청해서 그의 삶을 조명하거나 삶의 철학을 듣는 방송

형식'이라고 정의했으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전통적 토크쇼의 모습은 감춰지고 있으며, 기존 장르관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나, 여러 장르의 형식이 혼합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방송에 탈장르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현상 속 토크쇼 또한 예외는 아니며 정통 토크 프로그램에 오락적 요소인 '쇼'가 강조된 토크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프로그램을 직접 소비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의 토크쇼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토크쇼는 시대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분류될지라도 내용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으로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크쇼는 사회적·교육적 기능이 강조되었던 '정통 토크쇼'가 아닌 오락에 치중된 '변형된 토크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문헌들을 통해 토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 결과,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아래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쇼가 자리하고 있지만, 토론 프로그램 또한 '쇼'적인 요소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론 프로그램 또한 토크쇼라고 보고, 토크 프로그램과 토크쇼라는 단어를 구분 짓지 않고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다.

토크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토크 프로그램의 기능²⁾

토크 프로그램의 기능	전통적으로 취약하다고 간주되어온 방송 미디어의 저널리즘 성격을 강화
	유명 인사나 정치인 등 공인을 등장시켜 그들과 일반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제공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확산 가능성

	다른 어떤 장르보다 수용자의 참여 보장
	저예산의 질 높은 방송 프로그램 실현
	생산적 토론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킴으로서 방송이 국민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함
	유명 인사나 스타를 등장시킴으로서 시청자에게 대리만족, 궁금증 해소, 즐거움 등 제공

토크 프로그램은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유명 출연자들의 고백을 통한 자기 성찰이라는 심리적 기능을 이행하며, 출연자와 시청자 간의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에게 그들의 삶을 엿보게 하고, 그로인해 대리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신속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뉴스보다 자세하고 쉬운 내용으로 설명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를 확산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며, 시청자의 참여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타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계속 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크 프로그램은 높은 질의 방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반가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토크 프로그램은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내용을 알게 하거나, 내용 전달에 있어 어떠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 혹은 출

2) 이영수(2000). “TV 프로그램 장르별 진행자 특성이 진행자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방송전공, 석사학위논문, 47p, <표 3>

3) 이금희(2012). “토크쇼의 상징적 자기완성 기능에 관한 연구 : KBS <아침마당> '수요가족탐구' 중년여성 출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 박사학위논문, 2p

연자로부터의 삶의 지혜나 경험 등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평소에 개인적으로 접하기 힘든 유명 인사나 연예인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해소하게 하고, 대리 만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은 크게 진행자와 출연자, 그리고 제작이 이뤄지는 세트장으로 들 수 있다. 진행자와 출연자, 녹화가 이뤄질 장소와 최소한의 제작진만 있으면 토크 프로그램은 진행이 가능하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어떠한 주제든 대화를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토크 프로그램이 된다.

(2)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방송의 진행자다. 방송 진행자는 프로그램 내용의 전달자이자,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얼굴 역할을 한다. 진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시청률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진행자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방영되는 것만 보아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행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서문식(2000)은 방송진행자는 곧 최 일선의 방송인이자 방송의 실체로서 수용자 대중에게 인지되는 인격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 진행자는 프로그램 내용의 전달자 역할과 상징적 얼굴 역할과 더불어 방송사의 대변인이자 프로듀서의 대리인 역할과 수용자의 교육자이자 대리인, 친구 역할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전달함과 동시에 주어진 질문들을 소화하고 분배, 조절하는 일도 진행자의 몫이며, 진행자

에게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선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나 토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진행자의 이름이 프로그램의 이름보다 더 크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프로그램 상 문제가 생기면 시청자는 그 평가를 제작진보다 진행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행자는 이를 기억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 진행자는 방송사가 원하는 기획의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시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한다. 따라서 진행자에게는 방송사와 프로듀서의 의도를 읽고 프로그램을 그에 맞춰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시청자가 가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시청자 대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출연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또한 바른 언어를 구사해 모범을 보이는 반면, 시청자들에게 친밀함을 줘야한다. 이처럼 방송 진행자에게는 다양한 역할을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이 요구된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통 스튜디오에서 출연자와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특성상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크 프로그램은 말이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주제를 어떤 진행자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 결정되기도 한다. 토크의 키를 잡아가는 것은 대부분 진행자의 몫이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진행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진행을 매끄럽게 하면서 프로그램의 분위기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행자로 선정된다면 그 프로그램의 절반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조준모(2008)는 방송 진행자에 대한 정의는 백인백색이나, 출연자와 시청자를 이어주는 동시에 프로그램에 담고 있는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

는 메신저로서 방송의 꽃이자 주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더해 토크쇼 진행자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방송 진행자는 출연자와 시청자를 이어주는 메신저이자 방송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토크쇼 진행자는 토크쇼의 얼굴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여타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비교해보아도 크다.

이영수(2000)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쇼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행자에 만족할수록 프로그램에 만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크 프로그램에 있어 진행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듯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진행자에게도 프로그램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진행자의 본 직업과 프로그램의 특성이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는 토크쇼에 여러 다른 장르들의 성격이 섞이며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의 구성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의 예로는 직종과 수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전문성을 갖춘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맡던 과거와 달리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진행자의 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로 남성 진행자 1명, 혹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짝을 지어 진행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여러 명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함께 맡는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주 진행을 맡은 진행자들과 보조 진행자들이 함께 하는 경우로 역할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원인으로는 기술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방송의 사전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워졌으

며, 프로그램의 SNS나 홈페이지, 혹은 기사를 통해서 방송이 제작되기도 전에 출연진과 정보가 뜨기도 한다. 심지어 시청자들의 요구로 인해 출연진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의 변화는 순발력과 재치, 혹은 기존의 호감도 등 방송진행자에게 있어 필요한 자질들 중 중요 순위의 변화와 새로이 요구되는 자질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과 구성의 진행자가 나타나는 것은 시청자들이 방송과 프로그램에 있어 요구하는 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3) 토크쇼 패널

패널은 주로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 외에 토론을 맡은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토크쇼가 집단화되기 시작하면서 진행에 참여하거나 게스트 외에 토크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보조 진행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김연희(2013)는 패널에 대해 매주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진행자의 진행을 돕거나, 일부 코너를 담당해 진행하며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 진행자라고 이야기하며,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대신해 그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토크쇼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이지만, 출연자가 말하는 방식이나 대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 그들이 조성하는 대화의 분위기, 그들 사이의 관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준복(2014)은 토론 패널에 대해 토론 내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춘 사람들로, 토론에 참가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논증,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거부하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원래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 간 차이와 대립이 선명하게 보였다면, 현재의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이 토론과 일상적 대화를 넘나들며, 토론의 과정에 농담을 적절히 섞음으로써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화 구조는 무겁고 딱딱한 전통 토론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가볍고 유연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처럼 패널들은 기존의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고정화된 딱딱한 모습을 벗어나, 토크 프로그램의 참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인물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토크쇼 구성

토크쇼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여러 시청각 요소들로 구성된다. 토크쇼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트장, 소품, 진행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비롯해, 진행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청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프로그램은 구성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토크가 이뤄지는 세트는 토크쇼의 중요한 구성 요인 중 하나다. 세트와 조명에 따라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변화하며, 보통은 평범하고 안정감 있게 구성된다. 예전 토크쇼의 세트는 대부분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집'을 모티브로 거실이나 안방, 혹은 응접실의 모습을 가져와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세트장이 토크쇼의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소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세트장의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소품이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토크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

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제작자들은 소품을 통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프로그램 소품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당시 유행하던 소품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기도 하다.

또,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는가는 진행자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보통은 핀 마이크를 이용하여 진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마이크가 잘 보이지 않게, 방송 상이 아닌 현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주려고 하지만, 핸드 마이크를 이용해 방송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임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마이크는 시청자로 하여금 마이크를 든 사람이 진행자라는 것을 지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토크쇼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방청객은 현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현장의 분위기를 넘어서, 방송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방송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전의 토크쇼에서는 방청객이 거의 필수요소였으나, 다양한 음향효과가 등장한 현재에 들어서는 방청객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의 토크쇼에서는 방청객이 존재하며, 단순히 호응을 하는 것을 넘어서 프로그램에 맞춰 투표를 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방청객의 또 다른 역할은 시청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방청객의 호응은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과 몰입을 안겨준다.

(5) 토크쇼 주제

토크쇼는 크게 주제 토크쇼와 인물 토크쇼로 나눌 수 있다. 토크쇼의 주제는 그 시대에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이나 내용으로 채워진다. 이 때문에

토크쇼는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창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해보면 각 프로그램들이 당시 있었던 여러 화제 속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곧 각 프로그램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토크쇼의 코너는 각 프로그램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내고 마무리 짓는가에 따라 시청자로 하여금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크쇼가 어떠한 코너로 구성되어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엿볼 수도 있다.

(6) 토크쇼 영상

텔레비전은 시청각 매체다. 프로그램은 특성에 맞춰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송출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던 자막과 자료화면이 다채롭게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있어 자막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들리지 않는 오디오를 보완하거나 특정 발언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자막은 발언에 대한 수용자들의 주의를 시각적으로 집중시키고, 주목이나 해석, 연상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제작진의 직접적 개입 통로라 할 수 있다.⁴⁾

자막은 방송사의 표현 영역으로서, 서술을 통해 특정 담론을 형성하거나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작자의 생각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프로그램의 재미를 배가시키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과거 자막은 주로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으며, 정보전달과 설명이

4) 이선민(2014).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미디어, 젠더&문화』 29권 2호, 92p

주목적이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이 사용된다고 해도 글씨체나 그 위치가 하단으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작게 표현되었다.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제작자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막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텔레비전 자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텔레비전의 모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었던 텔레비전 자막을 차용해 우리나라 오락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차츰 보편화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컴퓨터 장비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보급됨으로써 자막과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도 자막의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자막의 기능 또한 단순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그 화면과 프로그램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자로서 등장하는 것 외에도 그림, 캐릭터, 기호 등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막의 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출연자들의 캐릭터를 잡아주고,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프로그램의 몰입을 높인다. 프로그램마다의 특징적인 자막은 특정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상징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막의 증가는 무분별한 자막의 사용으로 프로그램을 산만하게 하고, 제작진의 의도 개입으로 인한 시청자의 자율적 시청을 방해하기도 한다.

홍준식(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의 출현 속도가 빨라졌고, 자막이 화면에 떠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한 화면에 자막이 이중삼중으로 중첩되고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자막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연출자 의도에 의한 자

막과 출연자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자막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자막 사용은 시청자의 능동성을 파괴해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며, 심지어 자막을 읽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질 정도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나 토크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에 비해 출연자의 움직임이 적으며, 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각적 기호들은 화면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영화업계에서 사용되던 CG 또한 방송영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다양한 시각적 장치들은 단순히 오락적 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프로그램의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크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자료 화면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영상의 변화 중 하나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성격의 토크쇼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 그 주제에 관한 자료들이 영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자료검색이 쉬워졌다는 것이 이렇듯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된 자료들은 토크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출연자들의 입으로만 제시되었던 예전과 달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료들은 이야기의 구성을 더욱 탄탄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2. 토크쇼와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에 관한 기존 연구

토크쇼는 사회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선하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말을 하고, 또 듣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토크쇼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여러 발달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 본 논문과 관련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야 토크쇼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심야 토크쇼의 포맷 변천에 관한 연구(이현숙, 2004)”, “시대 흐름에 따른 TV토크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 KBS 토크쇼를 중심으로(조준모, 2008)”, “심야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장르 혼합에 관한 연구(이지현, 2010)”, “국내 오락 토크쇼 흐름과 소통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연구 : 자기노출 관점을 바탕으로(오미영, 2014)” 등이 있었다.

“심야 토크쇼의 포맷 변천에 관한 연구(이현숙, 2004)”는 심야 토크쇼의 시대별 특징을 통해 심야 토크쇼의 포맷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심야 토크쇼의 포맷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대적·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내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변형 토크쇼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대 흐름에 따른 TV토크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 KBS 토크쇼를 중심으로(조준모, 2008)”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TV토크쇼의 진행자 특성과 프로그램 포맷의 변화, 시대상황과 이들 간의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야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장르 혼합에 관한 연구(이지현, 2010)”에서는 장르혼합 현상을 보이는 2000년대 토크쇼의 전개방식과 구조, 오락적

요소의 특징을 분석했다.

“국내 오락 토크쇼 흐름과 소통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연구 : 자기노출 관점을 바탕으로(오미영, 2014)”는 토크 프로그램이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방송 장르로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담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대중적인 소통 형태와 구조를 살폈다.

연구들에 따르면 토크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포맷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크쇼의 간판 역할을 하는 토크쇼 진행자에 관한 연구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진행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이금희, 1998)”, “TV 프로그램 장르별 진행자 특성이 진행자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영수, 2000)”,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에 관한 연구(서문식, 2000)”가 있었다. 세 논문 모두 토크 프로그램에 있어 진행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진행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이금희, 1998)”는 KBS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진행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밝혀냈고,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진행자에 대한 기호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장르와 유사한 진행자 유형을 선호하며,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객관적이며 딱딱한 모습의 진행자보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간적인 모습의 진행자를 원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TV 프로그램 장르별 진행자 특성이 진행자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영수, 200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장르별

텔레비전 방송진행자의 이상형, 진행자의 선호 요인과 그에 따른 만족도, 진행자의 만족도 결정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토크쇼 진행자의 만족도가 토크쇼 만족도와 매우 높은 관계를 가졌다. 이는 진행자라는 토크쇼 구성 요인이 토크쇼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한다.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에 관한 연구(서문식, 2000)”에서는 텔레비전 토크쇼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을 코미디언이 맡았을 때 순발력과 재치에 있어 기대효과가 크며, 이로써 코미디언이 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 개입 시계열분석을 이용한 저녁종합뉴스 분석을 중심으로-(한수연, 2015)”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 기존 시장인 지상파 방송사 뉴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종편 출범에 따라 뉴스 시장의 경쟁이 증가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의 뉴스에 형식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 시도 되었다고 밝혔다. “채널 증가에 따른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다양성 변화 연구 : 종합편성 채널 개국 전후를 중심으로(표시영·유세경, 2016)” 연구에서는 종편 개국 후 시청률 전략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다양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고, 지상파의 경우 종편 개국 후 출연진과 소재의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들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지상파 프로그램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토크쇼의 역사가 짧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심야 토크쇼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적게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방송 종사자들의 석사 학위 논문에 그쳤다. 특히나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의 토크쇼 프로그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들이 제작·편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심야 토크 프로그램의 변천과 그 과정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지상파 심야 토크쇼의 역사적 변천

(1) 1980년대

우리나라 토크쇼는 보통 1989년에 시작된 <자니운 쇼>를 국내 토크쇼의 시발점으로 보는 편인데, 이는 미국의 토크쇼를 모방한 것이다. 한국 토크쇼는 미국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토크쇼 포맷의 변화는 상당히 크다. 사실상 최초로 진행자 이름을 내세운 토크쇼로는 MBC의 <임택근 모닝쇼>를 들 수 있고, KBS에서 1971년 토크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최계환의 <토요 초대석>이 제작되긴 하였지만 <자니운 쇼> 이전의 토크쇼는 토크쇼라기보다는 시사, 교양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쇼’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한 <자니운 쇼>를 한국 최초의 토크쇼로 보고 있다. 또, 1980년대 이전에는 토크쇼라고 불릴만한 프로그램이 제작·편성되지 않았고, 1980년에 들어서서 토크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토크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의 토크쇼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80년대 방영되었던 토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2> 1980년대 토크쇼⁵⁾

방송사	년도	프로그램 명	진행자	출연자	방송시간
KBS	1981	밤의 스타쇼	하지훈	연예인/동료	21:00 - 22:40
	1983	토크쇼 부부		일반인 부부	23:10 - 23:50
		11시에 만남시다	김용호→김 동건	일반/유명 인	23:00 - 24:00
	1989	스타 데이트	이상해, 채시라	연예인	19:05 - 19:55
		쟈니윌쇼	쟈니윌, 조영남	연예인	22:55 - 23:55
MBC	1980	이수만과 함께	이수만	연예인/유 명인	22:40 - 23:30
	1981	안녕하세요 변웅전입니다	변웅전, 최경미	일반인/전 문가	08:20 - 19:10
		여와 남	차인태, 임국희	일반인	12:10 - 13:00
	1983	차인태의 아침살롱	차인태, 정은주	일반인/전 문가	08:15 - 08:50
	1984	노래의 날개 위에	변웅전	저명인사	23:20 - 24:00
		텔레비안 나이트	이주일, 손정은	스포츠, 예술계 유명인사	22:45 - 23:35
		쇼! 스타 24시	변웅전	연예인	18:10 - 19:00
	1989	세상사는 이야기	황인용	일반인	22:40 - 23:30

	MBC 토요살롱	고영수	연예인/일 반인	24:00 - 01:20
	노래는 나의 인생	서한샘	가수(옛가 수)	24:30 - 01:00
	밤의 가요쇼	이주일	가수	22:50 - 23:40

위의 토크 프로그램들이 방영된 시간대는 다양하며, 몇몇은 심야 토크쇼로 분류하기도 어렵지만, 당시 제작된 몇 안 되는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0년대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토크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에게 재미와 웃음 지향적인 오락적 형태보다는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저명인사가 출연자로 선정되었고, 때로는 감동적이면서 포근한 인생스토리를 가졌거나 연예인 게스트가 나올 경우에는 스타의 라이프 스토리를 털어 놓는 게 대부분의 포맷이었다.⁶⁾

예로 KBS에서 방영된 <11시에 만납시다>를 들 수 있다. <11시에 만납시다>는 밤 시간대의 정통 토크 프로그램으로, 10년(1982. 02. 15 ~ 1992. 09. 28)이 넘게 방영된 KBS의 대표적인 토크쇼다. 남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출연자로는 사회 여러 분야, 여러 층의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출연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유명인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 시청자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교양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었다.

MBC에서는 <이수만과 함께>가 2달 정도 짧게 방영되었고, <여와남>, <안녕하세요 변웅전입니다> 등이 방송되었다. 특히나 아나운서인

5) 이현숙(2004). “심야 토크쇼의 포맷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석사학위논문, 54p, <표 4>

6) 이현숙(2004). 위의 논문, 49p

변웅전은 <안녕하세요 변웅전입니다> 외에 <노래의 날개 위에>, <쇼! 스타 24시>라는 토크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1980년대 MBC 토크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활약했다.

이처럼 80년대 초반의 토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아나운서나 전문 방송인이 진행을 맡았으며, 출연자 역시 80년대 초반에는 톱스타가 아닌 일반인이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으로 시사, 교양적 성격이 강했다. 토크쇼의 구성이 단순했으며 진행자의 진행 스타일은 다소 딱딱했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80년대는 독재와 억압으로 얼룩진 획일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토크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이며 정형화된 모습 또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지 못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국내 TV 보급률이 낮았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지 않았다. 물론 방송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다지 시청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적 특성도 비슷한 토크 프로그램이 제작·편성되는 데 한 몫을 했다.

1980년대 중반에 가서야 이수만, 이주일, 자니윤 등의 연예인 진행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게스트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출연하면서 재미와 오락적인 부분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이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국내에 국제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비 집단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다양한 대중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탄생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니윤 쇼>다.

<자니윤 쇼>는 미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재미교포 한국 코미디언인 자니윤을 내세워 만들어진 토크쇼로, 미국 토크쇼에 여러 번 출연한 바 있는 인물을 데려와 미국의 토크 프로그램을 손쉽게 모방하려는 의도가 담

겨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자니운 쇼>는 타 토크 프로그램과 달리 재미를 추구하고, 유머러스한 진행 방식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자니운 쇼>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유명인사 외에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사는 이야기>와 노래와 함께 진행되는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MBC의 토요일살롱>은 개그맨을 진행자로 내세워 다른 토크 프로그램들과 차별점을 주었으며, <밤의 가요쇼> 또한 코미디언 이주일의 진행을 맡아 활동 중인 가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토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니운 쇼> 이전에는 주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1:1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대담적 성격이 강했다면, <자니운 쇼>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토크 프로그램의 제작 상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SBS가 개국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당시 토크쇼에서 다루는 주요 키워드는 '감동'이었다.

(2) 1990년대 전반(1990-1995)

1990년대 방송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가 민영방송을 허용하면서, 1991년 SBS가 개국하고 이로 인해 KBS와 MBC만이 존재하던 시청률 시장이 경쟁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1995년부터는 지역에 민영텔레비전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개국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8년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각 방송사는 타 방송사뿐만 아니라 타 미디어와의 경쟁 시장에 돌입하게 되었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시청률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청률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토크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토크 프로그램들은 그동안의 점잖음을 버리고, 오락성을 대폭 강조하며 경쟁 시장에 뛰어 들었다. 전에 비해 ‘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이렇듯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토크 프로그램들이 대거 탄생한 1990년대는 토크쇼의 전성기라 할 수 있으며 당시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는데, 시대 초반과 후반에 따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5년을 단위로 나누어 당시 토크쇼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 초반에 방영되었던 토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 1990년대 전반(1990-1995) 토크쇼⁷⁾

년도	KBS	MBC	SBS
1990	자니윤 쇼	세상사는 이야기	
	신혼은 아름다워	노래는 나의 인생	
	11시에 만납시다		
1991	11시에 만납시다	세상사는 이야기	자니윤 이야기쇼
		추억은 가슴마다	
1992	오늘 같은 밤	세상사는 이야기	자니윤 이야기쇼
	11시에 만납시다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밤으로 가는 쇼	토크쇼 부부만세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1993	밤으로 가는 쇼	김한길과 사람들	주병진 쇼
	조영남 쇼	이숙영의 수요일스페셜	

	밤과 음악 사이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1994	밤과 음악 사이	김한길과 사람들	투맨쇼 두 남자와 만남시다
	토크쇼 회전목마	한밤의 데이트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행복이 가득한 집		
1995	토크쇼 회전목마	주병진 나이트쇼	깊은 밤 전영호 쇼
	이문세 쇼	김한길과 사람들	
	밤과 음악 사이	쇼! 부부 리서치	
	행복이 가득한 집		

KBS와 MBC는 90년대 전반에만 해도 연예인 출연자보다는 유명 인사를 출연자로 선호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 시작한 SBS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락성 토크쇼를 제작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KBS에서 <자니윤 쇼>를 진행했던 자니윤을 캐스팅해 <자니윤의 이야기쇼>를 편성하며 연예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 뒤로는 <주병진 쇼>를 통해 화제의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화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물의 특성도 변화하게 되었다. 정보전달을 중시하던 1980년대와 달리 순발력 있으면서 시대 유행을 잘 읽으며 웃음을 끌어내는 데 능숙한 진행자를 원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해 진행자들은 자연스레 아나운서가 독점하고 있던 상황을 벗어나 연예인들이 주가 되는 상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개그맨 진행자는 그리 부각되지 않았지만 80년대에 비하면 확실히 아나운서 대신 연예인 진행자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7) 이현숙(2004). 위의 논문, 62p, <표 5>

하지만 새로운 방송사가 등장하고, 방송사 간 토크쇼의 제작은 늘어난 것에 비해 대부분이 서로를 모방한 것으로 서로 간의 차별성이 부족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토크 프로그램들을 획일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다. 가장 큰 예로 <오늘 같은 밤>, <밤으로 가는 쇼>, <밤과 음악 사이> 등 '밤'이 들어간 프로그램명이 많았다는 것과 대부분의 토크쇼에 악단이 자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 당시 토크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었다.

<노래는 나의 인생>, <밤과 음악 사이>,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등 음악을 결들인 토크쇼가 만들어졌으며, <신혼은 아름다워>, <토크쇼 부부만세>, <쇼! 부부 리서치>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한 토크쇼도 대세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1995년에 만들어진 SBS의 <깊은 밤 전영호 쇼>는 유명한 부부들을 초청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성적인 표현과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상업성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성 담론에 대한 논의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3) 1990년대 후반(1996-2000)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케이블 TV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며, 매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80년대에 이르러 소비 집단으로 떠오르던 10대 청소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감각적이고 오락적인 성향의 프로그램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토크 프로그램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토크쇼에는 진행자

를 비롯해 토크의 주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1990년대 후반에 방영되었던 토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 1990년대 후반(1996-2000) 토크쇼⁸⁾

년도	KBS	MBC	SBS
1996	토크쇼 회전목마	주병진 나이트쇼	이홍렬쇼
	이문세 쇼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	깊은 밤 전영호쇼(1월)
	밤과 음악 사이	심야 토크쇼 '고백'	이주일의 투나잇쇼
	행복이 가득한 집	쇼! 부부 리서치	달빛 소나타
	이소라의 프로포즈		
1997	밤의 이야기쇼	잠 못 이루는 밤에	이홍렬쇼
	밤과 음악 사이	정미홍이 만난 사람	이주일의 투나잇쇼
	서세원의 화요스페셜	임백천·이경규의 좋은 밤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심야 토크쇼 '고백'	
	이소라의 프로포즈		
1998	밤의 이야기쇼	정미홍이 만난 사람	김혜수의 플러스유
	조영남·황현정의 이야기 콘서트	임백천·이경규의 좋은 밤입니다	이홍렬쇼
	행복이 가득한 집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
	서세원의 화요스페셜		
	서세원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1999	행복이 가능한 집	백지연의 백야	김혜수의 플러스유

2000	서세원쇼	정미홍이 만난 사람	
	이소라의 프로포즈		
	이소라의 사랑할까요		이홍렬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주영훈·최화정의 D-Day	김혜수의 플러스유
			남희석의 색다른 밤

90년대 후반 토크쇼의 특징 중 하나는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타이틀에 진행자의 이름이 붙는다는 건 진행자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문세 쇼>, <이주일의 투나잇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이홍렬쇼>, <정미홍이 만난 사람들>, <김혜수의 플러스 유>, <서세원쇼> 등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

특히나 이홍렬, 이주일, 서세원, 이경규, 남희석 등 남성 개그맨들이 진행자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나운서의 딱딱한 진행에서 벗어나 오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변화에 있어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야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행자로 개그맨들이 적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SBS의 <이홍렬쇼>는 이홍렬이 가졌던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를 이용해 편성되었던 토크쇼로, 당대 최고의 인기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높은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다. 이홍렬은 특유의 아기자기하고도 깔끔한 진행으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었으며, 개그맨 출신답게 유머러스한 말솜씨와 순발력 있는 재치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갔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은 세트장을 주방으로 구성하여, 진행자와

8) 이현숙(2004). 위의 논문, 73p, <표 6>

게스트가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보였으며, 시청자에게 토크 외에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KBS에서 방영되었던 <서세원쇼>는 앞서 방영되었던 <서세원의 화요스페셜>의 이름을 바꿔 단장한 프로그램으로, 연예, 스포츠계 인물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서세원쇼>는 <이홍렬쇼>와 마찬가지로 당대 높은 인기를 구사했으나, 초기에는 <이홍렬쇼>를 모방한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진행자인 서세원은 이홍렬과 같이 코미디언 출신이었으나 친근한 이미지를 살린 진행방식을 택한 이홍렬과 달리 거칠고 공격적인 진행방식을 사용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여성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으로는 <이소라의 프로포즈>, <이승연의 세이세이>, <김혜수의 플러스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소라의 프로포즈>는 실력과 가수들을 소개하는 음악 토크쇼로, 이소라 특유의 어눌하면서 재치 있는 말솜씨로 시청자뿐만 아니라 출연자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는 <이홍렬쇼>를 뒤이어 편성된 토크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인 이승연의 능숙한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승연의 운전면허 불법 취득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프로그램이 종영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김혜수의 플러스유>가 제작·편성되기 시작했다. 김혜수는 조리 있는 말솜씨로 <김혜수의 플러스유>를 이끌어가면서 100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 토크쇼의 특징으로는 스타 의존성이 강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주제를 정해놓기보다는 게스트로 등장하는 스타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 중심’ 토크쇼가 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스타 MC, 인지도가 높은 MC를 기용하려는 방송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였고,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진행자의 말솜씨에 기대려는 경향이 컸다. 또한 시청

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진행자의 의상이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출연자 또한 마찬가지다. 시사 정보가 아닌 스타들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다루게 되면서 출연자 또한 그 시대의 매력적인 연예인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은 본인의 영화나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토크쇼에 비해 출연할 수 있는 연예인은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연예인들의 중복 출연으로 이어졌고,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4) 2000년대

스타 연예인들을 내세운 토크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성황리에 방영됐다. 다만 포맷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주목적으로 진행되던 정통 토크쇼에서 게임이나 퀴즈를 푸는 등 버라이어티 장르의 혼합이 일어난 변형 토크쇼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의 탄생은 한정된 연예인들로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더 이상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방송사가 이야기와 더불어 출연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의 포맷을 개발해 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방영되었던 토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5> 2000년대 토크쇼⁹⁾

년도	KBS	MBC	SBS
2001	서세원쇼	이소라의 사랑할까요	이홍렬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주영훈, 최화정의 D-Day	김혜수의 플러스유
	조영남이 만난 사람		남희석의 색다른 밤
	이휘재, 유재석의 이유 있는 밤		박수홍, 박경림의 아름다운 밤
	신동엽, 이효리의 해피투게더		기분 좋은 밤
2002	서세원쇼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헤이헤이
	조영남이 만난 사람		류시원, 황현정의 NOW
	이소라의 프로포즈		박수홍, 박경림의 아름다운 밤
	이휘재, 유재석의 이유있는 밤		
	신동엽, 이효리의 해피투게더		
	윤도현의 러브레터		
2003	조영남이 만난 사람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헤이헤이
	윤도현의 러브레터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재석, 김제동의 해피투게더		
2004	조영남이 만난 사람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재석, 김제동의		김용만, 신동엽의

	해피투게더		즐거찾기
	윤도현의 러브레터		
	상상플러스		
2005	해피투게더 프렌즈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문세의 오아시스	
2006	해피투게더 프렌즈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윤도현의 러브레터	황금어장	
	미녀들의 수다		
2007	해피투게더 프렌즈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2
	윤도현의 러브레터	황금어장	
	해피투게더 시즌 3		
	미녀들의 수다		
2008	해피투게더 시즌 3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2
	박중훈쇼	황금어장	최수종의 더 스타쇼
	윤도현의 러브레터	세바퀴	김정은의 초콜릿
	이하나의 페퍼민트		
	신동엽, 신봉선의 삼페인		
	미녀들의 수다		
2009	해피투게더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2
	승승장구	황금어장	김정은의 초콜릿
	신동엽, 신봉선의 삼페인	세바퀴	강심장
	미녀들의 수다		스타부부쇼 자기야
	유희열의 스케치북		

2010	해피투게더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김정은의 초콜릿
	승승장구	황금어장	강심장
	미녀들의 수다	세바퀴	스타부부쇼 자기야
	달콤한 밤		
	유희열의 스케치북		
	해피 버스데이		

2000년대의 토크쇼들은 기존 토크쇼에 퀴즈, 콩트 등을 첨가해 새로운 재미를 추구했다. 이렇게 변형된 토크쇼들 중 몇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상플러스>는 탁재훈, 이휘재, 김종국 등이 진행을 맡아 스타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로 출발하였으나 세대 간의 언어차이를 알아보고 극복해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퀴즈코너에 주객이 전도되면서 토크쇼보다는 오락 퀴즈쇼로 변모하였다. 퀴즈에 있어서는 노현정 아나운서가 출연해 퀴즈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았다.

<승승장구>는 집단화된 토크쇼가 트렌드를 이루는 2000년대에 한 명의 게스트에게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진행자로써는 김승우가 가장 큰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 본 직업이 배우이며, 진행 능력에 대해 검증이 안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우습게도 3년 가까이 방영되며 상당히 장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초반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게스트를 맞이하고, 프로그램의 끝에는 진행자가 게스트가 함께 공연을 하는 밴드 공연 형식을 차용했는데, 이는 곧 없어지고 토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9) 이지현(2010). “심야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장르 혼합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방송전공, 석사학위논문, 74~76p, <표 14> 재구성

<해피투게더>는 신동엽과 이효리가 진행을 맡아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준다는 콘셉트로 기획·제작되었다. 스타들은 교복을 입고 토크에 임했으며 학창시절과 관련된 일화를 풀어냈다. <해피투게더>는 변형 토크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프로그램에서 등장했던 '쟁반 노래방'은 굉장한 인기를 구사했다. '쟁반 노래방'은 출연자들이 차례로 노래를 이어 부르다 가사나 박자를 틀리면 머리 위로 쟁반이 떨어지는 코너로, 허둥대는 출연자와 간간히 이루어지는 토크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해피투게더>는 유재석과 김제동으로 진행자가 교체되었고,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제작이 되다가, <해피투게더 프렌즈>로 바뀌며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친구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했다. 이후에는 목욕탕을 배경으로 하는 사우나 토크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훈훈하면서도 따뜻한 토크쇼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황금어장>은 무릎팍 도사라는 콘셉트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강호동이 메인 MC로 등장했으며, '도사'라는 콘셉트에 맞게 색동한복을 입고 있었다. 또,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스튜디오는 마치 '점집'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출연자들은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저명인사나, 스포츠계 유명인사들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출연자들은 고민 상담을 한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어린 시절 일화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자신의 인생 전반에 관해 공개했다.

<세바퀴>는 '세상을 바꾸는 퀴즈'를 줄인 말로,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퀴즈'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구라, 이휘재, 박미선으로 진행진이 구성되었으며, 많은 고정 보조 출연자들이 함께 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령별 선호도 같은 것에 대해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크는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많은 출연자들이 한꺼번에 출연했으며, 신인 아이돌들이 얼굴을 알릴 수 있다는 점

에서 반가운 프로그램이었으나, 지나치게 홍보적인 느낌이 든다는 반감을 사기도 했다.

<야심만만-만명에게 물어 봤습니다>는 시청자 만 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스타들의 속마음을 맞춰보는 랭크방식으로 토크를 진행하였다. 강호동과 박수홍이 진행을 맡았는데, 이들이 각각 문제를 내면 연예인 게스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자 설문과 의견이 일치하는 지에 대해 맞춰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만약 시청자와 의견이 다르면 게스트들은 벌칙으로 강한 바람을 얼굴에 맞게 되어 있었는데, 바람을 얼굴에 맞고 망가지는 스타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강심장>은 집단 토크를 잘 보여준다. 출연자에게는 칠판이 제공되며, 출연자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토크의 키워드를 칠판에 적어 알린다. 키워드를 본 진행자가 지목을 하면 토크를 시작하게 되는데, 많은 출연자들이 한꺼번에 출연해 화면을 채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자의 이야기에 호응을 하며 방청객들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토크 중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출연자에게는 '강심장'이 주어지는데, 이를 차지하기 위해 출연자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에 대해 털어놓기도 하지만 타인에 관한 폭로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진행자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강한 이미지를 가진 강호동과 발라드 가수 출신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이승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 활약했다.

이전 심야 토크쇼의 문제점 중 하나는 출연자의 대부분이 비슷한 연예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한정되어 있는 출연진의 중복된 출연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식상함을 주고, 이는 곧 프로그램의 흥미를 잃게 하는 것으로 연결됐다. 물론 소재나 출연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할지라도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도 있으나 비슷한 얼굴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지친 상태였다. 이에 방송사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프로그램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출연자들을 한꺼번에 출연시키는 것이다.

1:1로 진행되던 토크 프로그램들은 사라지고, 다수의 진행자들이 다수의 출연자들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게스트가 한 명이고, 주 진행을 맡은 진행자도 한 명이라 해도 그 옆에는 보조 진행자가 자리했고, 심지어 게스트의 손님을 초청해 출연자를 늘려갔다. 이는 여러 출연자 중 한 명이라도 시청자의 눈길을 끌어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많은 출연자들이 함께 출연을 하다 보니 한 인물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인생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일화 나열식의 토크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화한 토크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들의 사운드로 설 틈 없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많은 출연자들로 인해 산만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00년대 토크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방청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전의 토크쇼에서는 방청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했다면, 이제는 연예인 게스트들이 서로를 위한 방청객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토크쇼에서 방청객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같은 출연자의 호응 외에도 필요하다면 음향효과로 박수소리와 야유 소리 등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방청객을 대신했다.

제Ⅲ장. 연구결과

1. 연구문제

위에서 살펴봤듯 우리나라의 토크쇼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사회 유명인사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을 초청해 공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점차 미국식 토크쇼를 들여와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스타들이 주가 되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연예계의 이야기와 스타들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고,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그 무게가 가벼워져 연예인들의 신변잡기나 농담들이 토크 프로그램을 채우게 되었다. 이제는 토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통적인 토크쇼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토크와 게임, 토크와 노래, 토크와 콩트 등 장르가 혼합된 변형 토크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토크 프로그램 자체가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소소하고 잔잔한 감동을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토크 프로그램은 시대적 변화와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 요인이 등장한 지금, 토크 프로그램 또한 여러 변화를 겪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 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와 패널의 특성은 무엇이며, 토크쇼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토크쇼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방송사별 심야 토크쇼의 현황은 어떤가?

둘째, 종편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셋째, 심야 토크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앞서 토크 프로그램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통해 토크 프로그램의 정의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6년 현재 방영되고 있는 심야 토크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현재의 심야 토크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밤 11시대의 토크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종편 출범 이전의 지상파 3사와 종편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현재의 지상파와 종편의 토크 프로그램을 방송사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토크를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이 연구대상이었으며, 연구 대상 토크 프로그램들은 ‘토크쇼’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토크쇼와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현재 지상파와 종편에서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는 다음과 같다.

<표 6> 2016년 9월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 토크 프로그램

방송사	KBS	MBC	SBS	JTBC	MBN	채널A	TV조선
프로그램 명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 세요	황금 어장 라디오 스타		썰전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풍문으 로 들었쇼	강적들
	비정상 회담			아궁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김제동 의 톡투유			속풀이 쇼 동치미			

(1) 조사절차

현재(2016. 09. 18) 방영되고 있는 방송사별(KBS, MBC, SBS, JTBC, MBN, 채널A, TV조선) 심야 토크쇼를 찾아 선정한 후, 각 3회 이상 시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기획의도와 출연진에 관한 정보는 각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출연자의 기본 정보는 포털 사이트의 프로필에 기재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주제 분석은 최근 6개월(2016. 03. 01 ~ 2016. 09. 18)의 주제들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2) 분석유목

<표 7> 토크 프로그램 분석 유목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
	방영횟수(2016. 09. 18 기준)
	프로그램 소개(기획의도)
	분류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패널	직업
	성별
	나이
	수
구성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3. 방송사별 심야 토크쇼의 현황

(1) KBS

다음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의 심야 토크쇼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 8>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영횟수 (2016. 09. 18 기준)	프로그램 소개 (기획의도)	분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월 23시 10분 (약 80분)	290회 (2010. 11. 22 ~)	사연이 주인공인 프로그램! 사람이 주인공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통 부재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보고자 한다.	예능
해피투게더 3	목 23시 10분 (약 90분)	465회 (2007. 07. 05 ~)	스타들이 펼치는 진솔한 토크를 통해 자극적이고 단순한 웃음을 탈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다.	예능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노소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청자의 고민을 다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사연의 주인공은 다양하다.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까지 각 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 각자의 고민을 풀어낸다.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토크를 이끌어가는 것은 고정 MC와 패널들의 역할이다.

오프닝에서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응원해 드립니다. 전국 고민 자랑!’이라는 멘트가 등장한다. 그 뒤로 고정 MC와 그 회의 패널들이 비춰지고, MC들이 패널들을 소개한다. 그 후 고정 MC 한 명이 사연을 소개하면 사연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주인공은 세트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게 된다.

사연을 소개하는 MC들은 사연의 특성에 따라 바뀌며, 담당 사연에 따라 MC의 자리도 중앙으로 옮겨오게 된다. 사연의 주인공이 무대의 중앙에 자리하면 MC들과 패널들은 사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주인공이 사연에 부가 설명을 하는 식으로 토크는 진행된다. 이때, 방청객들의 반응이 사연의 심각성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필요에 따라 사연에 관한 증거물이나, 증인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당사자와 MC가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고민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고민의 심각성에 따라 방청객들에게 투표를 받는데,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보통 3개 정도의 사연이 한 회에 소개된다.

<해피투게더 3>는 스타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3명의 남자 MC와 2명의 고정 패널로 이루어진 진행자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게스트들을 맞이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그 중 한 MC는 짧은 파마머리 가발과 중년 여성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코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정 패널들은 MC를 보조하는 역할로, 토크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출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토크의 주제는 출연자와 관련된 주제로 선정되며,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기보다는 출연자로부터 일화나 개인기를 끌어내 소소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세트 구성은 주택의 거실과 같이 꾸며져 있으며, 출연자들의 성향과 관련해 해당 회의 코너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점점 거칠고, 자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예능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 스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KBS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9>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프로그램 명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신동엽	MC, 개그맨	남		5
	컬투 (정찬우)	개그맨, 가수	남		
	컬투 (김태균)	개그맨, 가수	남		
	이영자	MC, 개그맨	여	1968년생/ 49세(만 48세)	
	최태준	탤런트, 영화배우	남	1991년생/ 26세(만 25세)	
해피투게더 3	유재석	MC, 개그맨	남	1972년생/ 45세(만 44세)	3
	박명수	MC, 가수	남	1970년생/ 47세(만 46세)	
	전현무	MC,	남	1977년생/	

		아나운서		40세(만 38세)	
--	--	------	--	------------	--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의 진행자는 총 5명으로, 남성 4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40대이며, 20대의 진행자(최태준)는 최근 (2016. 08. 29)에 합류하였다. 신동엽은 소소하거나 아예 자극적인 사연을 주로 맡으며, 정찬우와 김태균은 재미가 주가 되는 사연을 다룬다. 정찬우는 오랜 라디오 진행 경력으로 입증되어온 입담으로 사연을 더욱 재미있게 살리며, 김태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 개인기인 목소리 묘사로 사연에 더욱 집중을 시킨다. 유일한 여성 MC인 이영자는 특유의 포근한 감성으로 감성적인 사연들을 주로 담당한다. 최태준은 중간에 합류한 유일한 MC로, 넓은 공감 능력과 젊은 감각으로, 거침없는 멘트와 적절한 추임새를 넣으며 자칫 답답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태준을 제외한 4명의 MC 모두 본 직업이 개그맨으로, 방청객으로부터는 웃음을 끌어내고, 사연자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에 최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MC 모두 캐주얼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해피투게더 3>에서 주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는 3명으로,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40대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편안한 복장으로 게스트들을 맞이한다. 3명 모두 MC가 본 직업으로 토크쇼 진행에 적합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유재석은 명실상부 톱 MC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명수는 투덜거리면서도 가끔 엉뚱한 멘트로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다. 전현무는 코믹한 이미지를 가진 아나운서로 유명세를 떨친 바가 있다. 게스트 하우스를 콘셉트로 한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 전현무, 그리고 패널들은 투숙생으로 소개되며, 아주머니 복장을 한 박명수는 게스트 하우스의 이모로 소개된다.

다음은 KBS의 심야 토크쇼 패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10>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프로그램 명	패널	직업	성별	나이	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5
해피투게더 3	조세호	MC, 개그맨	남	1982년생/ 35세	2
	엄현경	탤런트	여	1986년생/ 31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고정 패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패널은 계속해서 바뀌며 주로 현재 화제가 되고 있거나,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연예인들이 자리를 채운다. 보통 2명에서 5명 정도의 패널이 한 회에 함께 한다. 의상은 간편한 복장으로,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매주 출연자들이 바뀌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MC들의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게스트라기보다는 패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프로그램 특성상 게스트(고민 사연자)들의 사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오프닝 이후 자신들의 근황이나 에피소드를 풀어놓는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게스트들의 사연을 듣고, 시청자를 대신해 질문을 하거나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피투게더 3>에는 1명의 남성 패널과 1명의 여성 패널이 출연한다. 40대로 구성된 MC들보다 젊은 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MC들과 달리 여성 패널이 함께 하면서 ‘집’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진행자들이 구현해야하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더욱 잘 살린다.

그중 조세호는 개그맨으로서 MC들을 보조하며 MC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웃음 포인트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엄현경은 유일한 여성 진행자로 엉뚱하면서도 뻔뻔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조세호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쌓은 진행경험으로 토크가 끊기는 빈 공간을 채워 넣고, 게스트들과 개인기 대결을 하는 등 프로그램의 감초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에 반해 엄현경은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 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로 참신한 느낌을 주며, MC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해 프로그램에 활력을 준다.

패널들은 MC보다 게스트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그들이 긴장을 풀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편안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한 복장을 하거나 분장을 하기도 한다.

다음은 KBS의 심야 토크쇼의 구성을 정리한 표다.

<표 11>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명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앉아서	앉아서	원형극장	○	무대	무대	무대 가운데	유	투표

세요									
해피투 게더 3	앉아 서	앉아 서	주택 거실	□	가운 데	진행 자의 양 옆	진행자 의 양 옆	무	없음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앉아서 진행되며, 200여명의 방청객이 함께 한다. 방청객은 투표나 간단한 인터뷰로 함께 하며, 적절한 호응으로 방송의 현장감을 살린다. 제작진 측에서 배부한 ‘안녕하세요’가 적힌 손수건을 들고 있으며, 이를 머리카락 손목에 묶는 등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착용하고 있다. 손수건은 각기 다른 방청객들에게 통일감을 줌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를 준다. 방청객들은 미리 방청신청을 한 사람들이며, 만 19세 이상에게만 방청의 자격이 주어진다.

세트의 전체 모습은 원형 극장과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방청석은 단이 나뉘어져 배치되어 있고, 방청객들은 아래에 있는 무대를 내려 보게 되어있다. MC와 패널, 게스트는 무대 위에서 방청객들을 향해 둘러 앉아 있으며, 담당 사연에 맞춰 MC들은 게스트의 옆 자리로 이동한다.

게스트의 자리는 무대 중앙이다. 좌식의자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석과 쿠션이 소품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소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무대 뒤편에는 대형 화면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연을 소개하거나 사연의 증거물을 제시할 때, 간간히 방청석과 게스트, MC 등 현장을 비출 때 사용된다. 무대 한 편에는 대형 미끄럼틀이 자리하고 있다. 게스트(일반인 출연자)들이 등장할 때,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볼풀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일단 웃고 시작하자’는 취지로 몸 개그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게스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하는 무대 장치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¹⁰⁾ 게스트들은 가지각색의 포즈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

며, 이러한 게스트의 등장과 함께 흘러나오는 시그널 송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밝게 전환시킨다.

<해피투게더 3>는 마치 주택의 거실과 같은 느낌의 세트장에서 제작된다. 제작진은 이를 일컬어 ‘해피하우스’라고 부르는데, 게스트 하우스를 콘셉트로 만들어진 곳이다.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반영된 듯하다. 세트장 곳곳에는 화분과 같이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품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MC와 패널은 소파에 앉아 게스트들을 기다린다. MC와 패널이 짧은 토크로 오프닝을 연 후 초인종이 울리면 패널이 현관문을 열고 게스트들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게스트들을 등장시킨다.

MC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세트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패널과 게스트들은 MC의 양 옆 소파에 앉아 토크를 시작한다. 출연자들은 슬리퍼를 착용하고 방석, 천으로 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토크를 이어가며, 중간 중간 게스트의 특성에 맞춰 게임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음은 KBS의 심야 토크쇼의 주제를 정리한 표다.

<표 12> KBS의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KBS(2016. 03. 01 ~ 2016. 09. 18)		
프로그램 명	회차 (방영일)	주제

10) 강민정(2012. 06. 08). [TV돌보기]'안녕하세요'에 미끄럼틀이 있는 이유는?. 스포츠한국, 참조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206/sp2012060808025694350.htm>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65회(2016. 03. 07)	그 남자의 사랑법 하... 그만하고 싶다 왜 이러는 걸까요?
	266회(2016. 03. 14)	중독된 사랑 정체를 밝혀라! 피 말리는 전쟁
	267회(2016. 03. 21)	밤마다 돌변하는 남자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내 사랑 도둑놈
	268회(2016. 03. 28)	예측불허 그녀 봄! 봄! 봄이 싫어요! 내 남자의 애인
	269회(2016. 04. 04)	상상 그 이상! 매일 원하는 남자 내 몸에 손대지 마!
	270회(2016. 04. 11)	남편을 찾아주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인간아~ 쫓!
	271회(2016. 04. 18)	보기 싫은 남자 까고 또 까고 독하다, 독해!
	272회(2016. 04. 25)	진짜 못해먹겠네! 인생 참 쓰다 개똥만도 못한 남자
	273회(2016. 05. 02)	이젠 갈라섭시다! 만취 지금 너 또 했냐
	274회(2016. 05. 09)	거기... 그래, 거기! 그 남자의 고문법 내가 만만하니
	275회(2016. 05. 16)	우리 집 화병 유발자 어머님께 제가 뭘 잘못했나요?
	276회(2016. 05. 23)	하찮은 여자

		제발 좀 떨어져! 고정하시옵소서
	277회(2016. 05. 30)	브레이크 없는 여자 숨이 턱! 들러볼지 마!
	278회(2016. 06. 06)	한 눈 파는 남자 애 아빠를 찾습니다! 파이터 인생
	279회(2016. 06. 13)	남편 좀 바꿔주세요! 지긋지긋 엄마가 뿔났다!
	280회(2016. 06. 20)	나는 투명인간입니다 여보... 제발! 부숴버리고 싶어요
	281회(2016. 06. 27)	참아도 너~무 참는 남자 모녀 전쟁 두부비지찌개
	282회(2016. 07. 04)	여보, 그거 또 봐? 관장님, 한판 붙죠? 주렁주렁
	283회(2016. 07. 11)	당신, 결혼 왜 했어? 늘 밀리는 남자 길뻥아! 정신 차려!
	284회(2016. 07. 18)	부탁해요, 아빠 최서방! 자꾸 이럴텐가? 소~~~름!
	285회(2016. 07. 25)	달콤 살벌한 그녀 아이가 여섯 확! 때려치울까요?
	286회(2016. 08. 01)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 결판냅시다! 우주 최강 이기주의자
	287회(2016. 08. 22)	내가 네 엄마냐?

		바람 난 남자 다 부숴 버릴 거야
	288회(2016. 08. 29)	나의 키다리 아저씨 탐욕적인 그녀 두 여자의 전쟁
	289회(2016. 09. 05)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 어요! 내 인생 진상남 수상한 아들
	290회(2016. 09. 12)	남편을 뺏겼어요! 엄마 그만 좀 말아먹어! 우리 집 시한폭탄
해피투게더 3	438회(2016. 03. 03)	독거남녀
	439회(2016. 03. 10)	해치지 않아요
	440회(2016. 03. 17)	1박 2일 - 이멤버 리멤 버 포에버
	441회(2016. 03. 24)	그렇고 그런 사이
	442회(2016. 03. 31)	뒤통수 치러 왔어요
	443회(2016. 04. 07)	태양의 남친들
	444회(2016. 04. 14)	꽃길만 걸으소서
	445회(2016. 04. 21)	육망남녀
	446회(2016. 04. 28)	신랑입장
	447회(2016. 05. 05)	울킬남녀
	448회(2016. 05. 12)	산전수전 공중전
	449회(2016. 05. 19)	1등부터 꼴등까지
	450회(2016. 05. 26)	1+1
	451회(2016. 06. 02)	가족 말고 똘이 중헌 디~~?!
	452회(2016. 06. 09)	여신 선수권
	453회(2016. 06. 16)	옛날 언니 vs 요즘 동생
	454회(2016. 06. 23)	갱생 프로젝트
	455회(2016. 06. 30)	우리 무슨 사이야?!
	456회(2016. 07. 07)	믿.보.아(믿고 보는 아이

		들)
	457회(2016. 07. 14)	글로벌 예능꾼
	458회(2016. 07. 21)	쇼윈도 친구
	459회(2016. 07. 28)	전국 흥神끼王 자랑
	460회(2016. 08. 04)	아재, 아재, 내가 아재?!
	461회(2016. 08. 11)	끝까지 살아남아라 <예능행>
	462회(2016. 08. 25)	이 조합, 히트다! 히트!
	463회(2016. 09. 01)	냉.부.해(냉동인간을 부탁해!)
	464회(2016. 09. 08)	쇼미더 스웱
	465회(2016. 09. 15)	너희가 주석을 아느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의 주제는 한 회에 보통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연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주제는 사연의 핵심 키워드로 만들어졌으나, 키워드만으로는 주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제는 두루뭉술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예상할 수 없게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사연이 다뤄졌다. 대부분이 ‘갈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으며, 가족들이 주 대상이었다.

<해피투게더 3>는 출연진의 특성에 맞게 주제가 정해진 듯하다. 출연자의 구성이 다소 익숙한 느낌(같은 영화 출연진, 같은 드라마 출연진 등)이었고, 주제가 토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제와 상관없이 출연자들의 근황이나 출연작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출연자들의 특성에 맞게 코너도 구성되는 편이었다. ‘꽃길만 걸으소서(444회)’, ‘가족 말고 뭣이 중헌디~~?!(451회)’, ‘이 조합, 히트다! 히트!(462회)’ 등 당시의 유행어를 변형해 주제로 사용하거나 ‘태양의 남친

들(443회)', '끝까지 살아남아라 <예능행>(461회)', '쇼미더 스웱(464회)' 등 당시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을 변형해 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출연진과 이야기를 꾸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와 <해피투게더 3>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각각 290회와 465회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다. 오랜 기간 방영되면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진행자로 최태준이 합류한 것 외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 <해피투게더 3>는 출연진과 코너, 스튜디오의 구조 등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출연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프로그램이었으며, 고정 출연자(진행자+패널)는 5명이지만 그 중 1명만이 여성 진행자로 성비가 다소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일반인을, <해피투게더 3>는 연예인 중심의 게스트 구성을 보였지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게스트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토크가 이루어지는 스튜디오 구조는 쿠션과 같은 포근한 느낌의 소품과 밝은 조명으로 꾸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진행은 앉아서 이루어졌으며, 출연자들 앞을 가로막는 탁자와 같은 장애물은 없었다.

따라서 KBS의 심야 토크쇼는 '인물' 중심 토크쇼로, 프로그램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야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다양했으나 어렵지 않은, 보편

적인 주제로 꾸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2) MBC

다음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MBC의 심야 토크쇼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 13>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영횟수 (2016. 09. 18 기준)	프로그램 소개 (기획의도)	분류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수 23시 10분 (약 80분)	493회 (2007. 05. 30 ~)	잘 나가는 DJ들이 TV에서 뭉쳤다! 라 디오에 "보이는 라 디오"가 있다면, TV 에는 "들리는 TV" <라디오 스타>가 있다!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내 인생 의 주제곡을 불러본 다~ <고품격 노래 방>까지! 부담 없 고, 재미있는 TV! <라디오 스타>	예능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황금어장>의 자투리 코너로 등장을 했다가
메인이 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MC들이 게스트
들을 향해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타 토크 프로그램에서 MC
들의 역할이 게스트로 하여금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
성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성 강한 MC들이 게스트와 대결하듯 공격

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끌어낸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물어보기 어려웠던 사생활에 관한, 혹은 스캔들에 관한 질문들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예능에 있어 원석들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신인들을 출연시키거나, 특이한 조합으로 게스트들을 구성해 색다른 시너지를 일으켜낸다. 여기에 여러 CG를 활용해 재미를 더한다. 토크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게스트들이 무대로 올라가 본인이 고른 노래를 부름으로써 ‘라디오’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가끔 다소 자극적 질문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민감한 이슈를 통쾌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공중과 예능프로그램으로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MBC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14>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프로그램 명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김국진	MC, 개그맨	남	1965년생/ 52세(만 51세)	4
	윤종신	가수, 작곡가	남	1969년생/ 48세(만 46세)	
	김구라	MC, 개그맨	남	1970년생/ 47세(만 45세)	
	조규현	가수, 뮤지컬 배우	남	1988년생/ 29세(만 28세)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진행자들은 4명으로,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국진은 가장 연장자로서 개성 강한 MC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

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독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다른 MC들보다 점잖은 캐릭터로, 불편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내고 게스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끔 토크의 흐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어수선해지면 이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이끄는 것도 김국진의 역할이다. 토크 소재가 빠르고 다양하게 바뀔수록 인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무게를 찾아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잡다하게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윤종신은 알미운 캐릭터로, 게스트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말장난을 치는 등 짓궂은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재미를 유발한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김국진과 독한 질문을 던지는 김구라 사이에서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게스트들을 대함으로써, 소소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김국진이 게스트들을 부드럽게 배려한다면, 윤종신은 특유의 간죽거림으로 게스트들의 긴장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게스트로 하여금 답변을 이끌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답변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도록 게스트에게 냉철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 진지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본 직업을 살려 게스트가 노래를 부르는 코너에서 뮤지션으로서의 설명을 덧붙여 코너에 약간의 전문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김구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MC로, 게스트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을 도맡아한다. 강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며, 타 프로그램에서는 다루기 힘든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직설적으로 들어가 게스트들을 당황시킨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물어봐준다는 점에서 MC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가끔 그 수위가 지나쳐 비판을

받기도 한다.

조규현은 본 직업이 가수로 토크쇼 MC를 맡기에는 진행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일한 20대 MC로 프로그램에 젊은 기운을 불어넣는다. 다른 MC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순간적인 재치로 게스트들을 당황시키기도 한다. 또래 게스트가 출연을 했을 때 관련 일화를 들려주기도 하며, 어린 게스트들과 MC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다음은 MBC의 심야 토크쇼 패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15>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프로그램 명	패널	직업	성별	나이	수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X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는 특별한 패널이 존재하지 않으며, 4명의 MC진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다음은 MBC의 심야 토크쇼의 구성을 정리한 표다.

<표 16>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명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	-----------	----------	------------	----------	-----------	----------	-----------	-----------	-----------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	앞아 서	앞아 서	라디 오 부스/ 무대	○	왼편		오른편	무	없음
-------------------	---------	---------	----------------------	---	----	--	-----	---	----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게스트들은 라디오부스 밖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토크가 진행되는 본 세트장에 들어오기에 앞서 부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MC들은 본 토크가 진행되는 세트장에 이미 앉아있으며, 이들의 소개로 게스트들이 세트장에 들어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오프닝이다.

토크는 반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진행되며, 진행자는 시청자가 보기에 왼편에, 게스트는 오른편에 위치한다. 원한다면 게스트들은 탁자 앞에서 춤이나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앉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크의 주제는 게스트의 근황이나 게스트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토대로 이뤄진다.

토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는 게스트들이 프로그램의 코너인 '고품질 노래방'에서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길 요구받는다. 이 코너에서 게스트는 주제에 맞춰 자신이 선정한 곡을 설명하고, 토크가 진행된 세트장 뒤편에 마련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토크가 진행되던 중 출연자들의 뒤로 프로그램의 로고가 걸려있던 부분이 갈라지면 그 뒤로 무대가 나타나는데, 노래를 부르는 출연자 외에 다른 출연자들은 토크가 진행된 탁자에 앉아 자연스럽게 무대를 올려보게 된다.

다음은 MBC의 심야 토크쇼의 주제를 정리한 표다.

<표 17> M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MBC(2016. 03. 01 ~ 2016. 09. 18)		
프로그램 명	회차 (방영일)	주제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468회(2016. 03. 02)	힙~ 속았지?
	469회(2016. 03. 09)	얼굴 전쟁
	470회(2016. 03. 16)	아빠를 울려
	471회(2016. 03. 23)	홍부자가 기가 막혀~
	472회(2016. 03. 30)	넌 is 뭔들
	473회(2016. 04. 06)	옹달샘에 빠진 나비
	474회(2016. 04. 20)	아~ 머리 아포~
	475회(2016. 04. 27)	팬이 됐어요~
	476회(2016. 05. 04)	센 놈 위에 더 센 놈
	477회(2016. 05. 11)	누가 재밌을지 몰라서 내가 나왔다
	478회(2016. 05. 18)	운빨 브로맨스
	479회(2016. 05. 25)	어디서 쿨내 안나요?
	480회(2016. 06. 01)	오~ 립(love)~ 잭키 사랑해~
	481회(2016. 06. 08)	신기한 노을 서프라이즈
	482회(2016. 06. 15)	나이? 그것이 빛이 중헌디?!
	483회(2016. 06. 22)	탁.. 탁.. 탁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484회(2016. 06. 29)	킹경규와 네(4) 제자들 1
	485회(2016. 07. 06)	킹경규와 네(4) 제자들 2
	486회(2016. 07. 13)	내 인생, 턴~업! (Turn-up!)
	487회(2016. 07. 20)	미친 친구를 소개합니다~
	488회(2016. 07. 27)	노잼에 꿀잼 발라드입니다
	489회(2016. 08. 03)	단짠단짠

	490회(2016. 08. 24)	끝까지 살아남아라, 홍보 행!
	491회(2016. 08. 31)	햇해! 햇해!
	492회(2016. 09. 07)	명품 조연 구역 - 주연 은 없다
	493회(2016. 09. 14)	함부로 배터지게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주제는 유행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되는 유행어와 인기 드라마, 영화 등을 참고로 대사나 프로그램명을 변형시켜 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제에 맞게 출연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흔히 보기 힘들었던 조합의 출연진들이 등장한다. <해피투게더 3>가 출연진에 맞게 주제가 만들어진 것과 달리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주제에 맞게 출연진이 꾸려진 듯하다. 주제와 관련된 일화를 주요 소재로 삼아 토크가 진행되며,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코너를 구성하고 있다.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는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로, 진행자는 모두 남성이다. 진행자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편이며, 게스트들 또한 새로운 얼굴이거나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물’ 중심 토크쇼이며, 게스트가 가진 일화를 중심으로 토크가 이뤄지지만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크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TV에 라디오의 구성방식을 가져와 토크에 음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문화방송’이라는 MBC의 정식 명칭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SBS

2016년 현재(2016. 09. 18일 기준)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오후 11시대 프로그램에는 토크 프로그램이 없다.

(4) JTBC

다음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JTBC의 심야 토크쇼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 18>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영횟수 (2016. 09. 18 기준)	프로그램 소개 (기획의도)	분류
비정상회담	월 22시 50분 (약 80분)	115회 (2014. 07. 07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세계 정상 회담이 있다면, 여 기, 국제 청년들의 평화와 행복한 미래 를 위해 각국 세계 청년들이 뭉쳤다! 기성세대의 멘탈을 흔드는 비정상적이 고 재기발랄한 세계 의 젊은 시선! 과연 그들은 한국 청춘들 이 봉착한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	예능

			볼 것인가! 매주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핫(Hot)한 안건을 놓고 펼치는 토론의 현장! 행복을 갈구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색깔 있는 미래의 답을 제시한다!	
썰전	목 22시 50분 (약 70분)	184회 (2013. 02. 21 ~)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개념 이슈 리뷰 토크쇼! 성역과 금기 없는 다양한 시선을 가진 각계각층 입담가들의 하이퀄리티 뉴스 토크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독한 혀들의 전쟁 "썰전"	교양
김제동의 톡투유	일 23시 00분 (약 60분)	72회 (2015. 05. 03 ~)	대한민국 최고의 말꾼 김제동과 함께하는 유쾌한 생활시사 토크콘서트! 청춘과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이 있는 곳으로 간다. 서로의 고민과 걱정 거리를 나누는 재미	교양

			와 의미를 겸비한 프로그램!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시민들과의 걱정 나눔 생생 현장 토크!!!	
--	--	--	--	--

<비정상회담>은 정상회담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국적을 가진 패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패널들이 각 국가를 대표한다는 설정으로 나와 여러 주제에 맞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낸다. 각 패널들은 평범한 외국인이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한 자격이나 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주제와 관련한 본인들의 생각을 펼친다. 토크쇼 형식을 취했지만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에 따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 프로그램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프닝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 UN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 입으로 대표라 우기는 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한다. 진행을 맡은 의장단(MC)들이 개회선언을 하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첫 번째 코너는 '지구상의 반찬타임-뭇이 중헌디?'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토론해보고 싶은 각국의 이슈를 가져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찬삼아 토론한다.'라는 멘트로 설명되는 이 코너에서는 각 패널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코너가 끝난 후에는 한국 대표의 자격으로 게스트가 등장하고, 또 다른 내용의 토론이 시작된다. 토론의 주제는 ‘비정상인가요?’에 관한 문제이다. 매주 상정되는 안건들은 게스트(한국 대표) 본인의 고민이거나, 한국 청년들의 고민이다. 프로그램의 막바지에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한 후,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정리함으로써 끝이 난다.

<썰전>은 토크쇼 형식을 취한 정치·사회 토론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졌으며, 정치에 있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두 패널이 나와 현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MC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그맨으로 다소 심각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크의 주제는 현 상황에 맞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관계 문제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심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기보다는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소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다른 성향을 가진 패널로 인해 다른 시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이들은 거침없는 입담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낸다. 마지막으로 ‘한줄평’을 통해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전달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정치, 시사를 예능으로 끌어 들여 어려운 주제에 일반 시청자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장점과 전문적이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현 사안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교양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

<김제동의 토틀투유>는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M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프로그램이다. MC와 방청객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보다 MC의 순발력과 상황대처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정된 세트

장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투어형식으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작된다. 방청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대강의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촬영일에 앞서 토크 주제를 공지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방청객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이게 된 방청객들과 MC, 그리고 패널, 게스트가 함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된다.

MC인 김제동이 등장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대본입니다.’라는 자막이 깔리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청중들의 이야기와 사전에 받은 사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사이 패널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풀어내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 게스트에 집중되는 타 토크쇼와 달리 패널과 MC, 관객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게스트가 등장한다고 해서 화려한 소개나, 근황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모든 내용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관객이 중심이 되는 토크쇼다보니 정해진 대본보다는 즉흥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 이럴 때 MC가 나서서 흐름을 수습하고, 다시 방향을 되돌려 놓는다. 여기서 MC는 토크쇼의 주인이 아니라 조정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관객들은 스스로없이 본인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다른 이의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나눈다.

다음은 JTBC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19>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프로그램 명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비정상회담	유세윤	개그맨, 가수	남	1980년생/ 37세(만 36세)	3
	전현무	MC, 아나운서	남	1977년생/ 40세(만 38세)	
	성시경	가수	남	1979년생/ 38세(만 37세)	
썰전	김구라	MC, 개그맨	남	1970년생/ 47세(만 45세)	1
김제동의 토틈유	김제동	MC, 개그맨	남	1974년생/ 43세(만 42세)	1

<비정상회담>의 진행자는 모두 30대의 남성으로 개그맨과 아나운서, 가수까지 본 직업이 다채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아나운서 출신인 전현무는 전체적인 진행을 맡고 있으며, 유쾌한 본인의 이미지를 통해 프로그램 전체를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무거워지지 않게 끌고 간다. 개그맨 출신인 유세윤은 시청자와 패널들 사이의 웃음을 담당하고 있으며, 순발력 있는 재치로 토크 사이 공백을 채운다. 가수 출신이면서 기존 프로그램들로부터 지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있는 성시경은 토크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MC진외에 다른 패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분위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패널들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하는 일도 있다. 이때, MC진들은 그들을 중재하고,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그들의 의도를 짚어 대신 전달하기도 한다. 패널들이 많이 존재하며, 패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C들이 방송에 비취지는 모습은 적다.

정상회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MC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으나, 발언을 함에 있어 진짜 토론처럼 격식을 차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복장만 두고 보면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표정과 말을 통해 프로그램의 밝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썰전>은 정치 시사 토크쇼로, 3명의 출연진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중 김구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프로그램 속 위치를 따지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패널 사이에서 그들의 사이를 중재시키고 프로그램을 정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이라기보다는 MC라고 하는 것이 더 알맞다.

김구라는 40대의 남성이자 본 직업은 개그맨으로 정치 시사 토크쇼의 MC로서의 관련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썰전>이 정치 시사 주제에 기반을 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개그맨이자 다방면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의 기존 이미지와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진다. 프로그램 특성 상 여러 방면의 지식이 요구되며 상황을 간파하고 정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사와 예능을 적절히 오갈 수 있게 하는 진행 능력이 요구되며, 토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프로그램 속에서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달력이 필요하다.

김구라는 독설을 쏟아내며, 거친 이미지가 강한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말을 아끼며 두 패널의 의견을 경청한다. 주제에 따라 두 패널 간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적절한 타이밍에 주제를 전환하며, 두 패널의 치열한 논쟁을 마무리 짓는다. 프로그램 분위기에 맞게 정장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두 패널들에게 시청자를 대신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든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배분해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

도록 유도한다.

<김제동의 토틈유>는 프로그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제동을 단독 MC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다. 김제동은 대본 없이도 24시간 방송이 가능하다는 자칭타칭 대한민국 최고의 말꾼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MC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방송 외에도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왔으므로, 토크 콘서트를 방송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제작진의 의도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청중과 함께 하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에 비해 돌발 상황이라든지, 청중의 예기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제작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MC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뛰어난 순발력과 재치가 요구되는데 김제동은 다방면의 풍부한 지식과 그동안의 진행 경험으로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하는 편이다. 또한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청중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청중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때 김제동의 친근한 이미지가 도움이 된다.

다음은 JTBC의 심야 토크쇼 패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20>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프로그램 명	패널	직업	국적	성별	나이	수
비정상회담	기욤 패트리	전 프로게이머	캐나다	남	1982년생/ 35세(만 34세)	8

	알베르토 몬디	방송연예인	이탈리아	남	1984년생/ 33세(만 32세)	
	마크 테토	기업인	미국	남	1980년생/ 37세(만 36세)	
	럭키		인도	남		
	자히드 후세인		파키스탄	남		
	오헬리엥 루베르		프랑스	남		
	알렉스 맞추켈리		스위스	남		
	니클라스 클라분데		독일	남		
썰전	유시민	정당인, 전 장관		남	1959년생/ 58세(만 57세)	2
	전원책	변호사, 시인		남	1955년생/ 62세(만 61세)	
김제동의 특특유	최진기	학원인		남		11
	정재승	대학교수, 물리학자		남	1972년생/ 45세(만 44세)	
	요조	가수, 영화배우		여	1981년생/ 36세(만 35세)	
	송길영	기업인		남		
	서천석	의사(정신과)		남	1969년생/ 48세(만 46세)	
	옥상달빛 (김윤주)	가수		여	1984년생/ 33세(만 31세)	
	옥상달빛 (박세진)	가수		여	1984년생/ 33세(만 32세)	
	송형석	의사(정신과)		남		
	정재찬	대학교수 (국어교육학과)		남	1962년생/ 55세	
	노명우	대학교수		남		

		(사회학과)			
	다니엘 린데만	화제인물	남	1985년생/ 32세(만 30세)	

<비정상회담>은 패널이 중심이 되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패널의 구성은 모두 다양한 국적의 남성으로 되어있으며, 연령대는 청년층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패널은 총 8명이다. 패널 구성에 있어 특이한 점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평범한 일반인들이 각 국가를 대표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국말을 능숙하게 해낸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정장을 입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토론에 참여함에 있어 예의를 지키고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 토론을 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그로인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세로 임한다.

<썰전>의 패널은 5~60대 남성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단출하게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관련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으로서 임한다.

유시민은 정당인으로, 16·17대 국회의원과 44대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역임했으며, 현재는 작가로 활동 중이나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에 있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전원책은 변호사이면서, 시사평론가로서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인물로, 프로그램이 원하는 패널의 모습과 적합하다.

두 패널은 모두 정장을 입고, 촬영에 임하며 취재원이자 정보원, 분석가로서 활약한다.

<김제동의 토틈유>에서 패널의 역할은 주로 듣는 역할이다. 패널이 중심이 되는 다른 토크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중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청중의 말에 호응을 하며, 공감하고, 적절한 위로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패널은 청중의 말을 듣고 전문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패널과 음악으로 청중과 함께하는 패널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한 회에 출연하는 전문가 패널은 2명이고, 음악 패널로는 한 팀이 출연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11명의 패널 중 8명이 남성이며, 각자의 직업과 연령은 다양하다. 그 중 가수 출신의 음악 패널들은 프로그램 사이사이 음악으로 청중을 위로하고, 다독이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다음은 JTBC의 심야 토크쇼의 구성을 정리한 표다.

<표 21>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명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비정상회담	앉아서	앉아서	회의실	∩	가운데	진행자의 양 옆	오른편	무	없음
썰전	앉아서	앉아서	암실	▽	가운데	진행자의 양 옆		무	없음
김제동의 토틈유	서서	서서	대강의실	—	자유로움	무대 오른편	무대 왼편	유	인터뷰

<비정상회담>은 ∩자형 구조의 탁자에서 진행된다. 세트장 전체의 분위기는 파란색을 중심으로 밝게 꾸며져 있으며, 왼쪽 편에는 출연자들의 국

기가 걸려있다. 세트장 뒤편에는 문이 있으며, 이 문은 후에 게스트들이 등장할 때 사용된다.

MC진 앞에는 ‘비정상회담 의장단’이라고 새겨진 명패와 비정상회담을 상징하는 모형기, 의사봉이 놓여 있다. 패널들이 앉아있는 탁자 앞에는 각자의 이름과 국가가 새겨진 명패와 작은 국기가 놓여 있다. 찬반 토론 시 명패에 붉은 색 조명을 켜 각자의 입장을 밝힌다. 세트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연상시키는 소품과 자리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MC진들과 패널, 일일 비정상 게스트가 착석한 상태로 오프닝이 진행되며, 2부가 시작할 때 한국 대표 게스트가 문에서 자신의 명패를 들고 등장한다. MC진이 중앙에 자리하며, 그 왼쪽과 오른쪽에 패널들이 나란히 자리한다. 일일 비정상 게스트는 왼쪽에, 한국 대표 게스트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한국 대표는 게스트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거창한 소개가 주어지지, 발언권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며, 다른 패널과 동등한 위치에서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썰전>은 암실 속 삼각형의 하얀 색으로 빛나는 탁자에 둘러앉아 진행된다. 가운데는 MC인 김구라가 위치하고, 패널들은 각자의 정치 성향에 맞게 진보 성향인 유시민은 왼쪽 편에, 보수 성향인 전원책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삼각형의 탁자는 마치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원리인 ‘삼권분립’을 연상시킨다.

오프닝과 진행 모두 앉은 자세로 진행되며, 세 사람 외에 다른 제작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주제와 관련된 게스트가 등장하기도 하나 주로 두 패널에 의해 주제와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진다.

스튜디오 전체가 캄캄한 암실이며, 조명은 세 사람이 앉아 있는 탁자에
만 비춰진다. 기타 소품을 쓰지 않고,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군더더
기 없이 깔끔한 환경으로 제작되어 있다.

주제 전환 사이 레슬링을 하고 있는 두 패널과 심판을 보고 있는 MC 모
형이 등장한다. 유시민 패널 모형은 빨간 글러브를 끼고 왼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원책 패널의 모형은 파란 글러브를 끼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
다. 이는 소품을 통해 두 패널의 정치 성향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제동의 토틈유>는 특별히 정해진 스튜디오가 없고, 청중을 찾아 읍
겨 다니며 진행된다. 많은 청중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주로 대강의실에서
제작되며, MC는 핸드마이크를 이용해 청중들 사이를 오가며 자유롭게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초반에 방청객들은 제작진이 배부한 스케치
북에 매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키워드를 쓰고 MC를 향해
들어 보인다. MC는 스케치북에 쓰인 키워드를 보고 청중에게 말을 걸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프로그램은 짜인 대본이 아니라 청중의 이야기
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패널과 게스트는 청중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후 등장하며, 무대 위에 앉
아서 청중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무대의 오른쪽에는 음악 패널이 자리하
며, 토크가 쉬어가는 지점에 악기를 연주하며 청중을 다독이는 노래를 부
른다. 소품으로는 작은 화분과 천 인형, 천으로 된 1인용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으며, 왼편에는 방청객과 출연진을 위한 음식이 담긴 냉장고와 칠판
이 배치되어 있다.

다음은 JTBC의 심야 토크쇼의 주제를 정리한 표다.

<표 22> JTBC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JTBC(2016. 03. 01 ~ 2016. 09. 18)		
프로그램 명	회차 (방영일)	주제
비정상회담	88회(2016. 03. 07)	백세시대, 30대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나
	89회(2016. 03. 14)	한류 열풍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나
	90회(2016. 03. 21)	시간 관리를 못 해서 불안한 나
	91회(2016. 03. 28)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92회(2016. 04. 04)	불편한 이웃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 나
	93회(2016. 04. 11)	1인자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나
	94회(2016. 04. 18)	늘 관심받고 싶은 나
	95회(2016. 04. 25)	버리는 삶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나
	96회(2016. 05. 02)	음모론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는 나
	97회(2016. 05. 09)	욕하던 꼰대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나
	98회(2016. 05. 16)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나
	99회(2016. 05. 23)	재해로 죽을까 봐 불안한 나
	100회(2016. 05. 30)	100회 특집 1부 "WE ARE THE WORLD"
	101회(2016. 06. 06)	101회 특집 2부 "WE

		ARE THE WORLD"
	102회(2016. 06. 13)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나
	103회(2016. 06. 20)	새로운 비정상 대표들의 출범
	104회(2016. 06. 27)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 하고 있는 우리들
	105회(2016. 07. 04)	사람들이 슬퍼야 먹고 사 는 나
	106회(2016. 07. 11)	이제 새로운 별명을 가지 고 싶은 나
	107회(2016. 07. 18)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 리를 듣는 나
	108회(2016. 07. 25)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한 우리
	109회(2016. 08. 01)	휴식 기간이 길어지면 불 안한 나
	110회(2016. 08. 08)	너무 이상적인 것에만 빠 져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나
	111회(2016. 08. 15)	‘대한민국 제71주년 광복 절!’ 비정상회담이 준비 한 <광복절 특집>!
	112회(2016. 08. 22)	SF영화가 현실이 될 거 라고 믿고 있는 나
	113회(2016. 08. 29)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나
	114회(2016. 09. 05)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나
	115회(2016. 09. 12)	믿을 수 있는 뉴스만 전 하고 싶은 나
썰전	156회(2016. 03. 03)	1부 - 테러방지법, 필리 버스터, 총선전쟁, 살생 부논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떡튀

		2부 - 수제주류, 사케자 판기, 지역술문화
	157회(2016. 03. 07)	1부 - 김종인 대표 야권 통합, 단수 추천, 대북제 재 결의안, 도널드 트럼 프 유력 2부 - 비주류 주류의 반 란, 수제 주류 시대 개막
	158회(2016. 03. 17)	1부 - 박근혜 대통령, 경제 행보, 총선 개입, 새누리당, 총선, 욕설 녹 취록, 야권 통합, 더불어 민주당, 공천 컷 오프 후 폭풍, 문재인 비례 대표 총선 출마 2부 - 인공지능 알파고, 이세돌, 프로그에이머, 무 인운전
	159회(2016. 03. 24)	1부 - 더민주 비례대표 명단 순번, 김종인 대표 셀프공천, 유승민 의원 무소속 출마, 트럼프 인 기공약 2부 - 선거판 켜의 전 쟁, 유정현 선거 비용 뒷 이야기
	160회(2016. 03. 31)	1부 - 옥새투쟁, 김종인 대표 원톱체제, 황교안 총리 의전 논란, 부산국 제영화제 2부 - 선거판 켜의 전 쟁, 유정현 선거 비용 뒷 이야기 II

	161회(2016. 04. 07)	1부 - 총선 이모저모, 유세스타일, 전관예우, 연쇄정상회담, 군사 정보 보호 협정 2부 - 환율에 대한 모든 것, 환전 꿀팁
	162회(2016. 04. 14)	1부 - 사전투표, 총선 이후 썰전, 4.13 총선 총평 2부 - 조세 회피 문건 공개,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 사상 최대 조세 회피 문건
	163회(2016. 04. 21)	1부 - 지진 비상상황, 세월호 참사 2주기, 총선 이후 정치권 동향, 대통령 총선 결과 언급, 브라질 대통령 탄핵 2부 - 황사와 미세먼지,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 환경 변화로 돈 버는 기업
	164회(2016. 04. 28)	1부 -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50대 기수론, 더불어 민주당 불협 화음, 굿바이 19대 국회, 국회의원 해외 방문, 베스트&워스트 의원 2부 - VR의 신세계를 알려주마, 리얼인듯 리얼 아닌 가상현실
	165회(2016. 05. 05)	1부 - 임시공휴일, 황금 연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광주 시민 총질, 유시민, 매력 정치인,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연정론, 해운업계, 히잡외교 2부 - 당, 설탕, 자몽주스, 가공식품, 액상과당, 각설탕
	166회(2016. 05. 12)	1부 - 교섭단체 3당, 상임 위원장 둘러싼 밥그릇 싸움, 우상호 원내 대표, 정운호 게이트, 트럼프 vs 힐러리, 김정은 최고수위 2부 - 청년 정치인 특집, 테러방지법, 청년 비례대표 제도, 20대 총선
	167회(2016. 05. 19)	1부 - 청와대 인사개편, 3당 지도부-박근혜 첫 회동, 여야 잠룡행보, 5.18 민주화 운동 36주년, 임을 위한 행진곡 2부 - 돈이 되는 마블 유니버스
	168회(2016. 05. 28)	1부 -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 사건, 맨부커상 수상 vs 조영남 대작 논란, 상시청문회법 통과 후폭풍 2부 - 미술 경매 재테크의 모든 것
	169회(2016. 06. 02)	1부 - 반기문, 문재인, 박원순, 홍만표 변호사

		탈세 의혹, 박대통령 해외 순방, 상시청문회법거부권행사, 일본 함정, 육일기 2부 -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170회(2016. 06. 09)	백상예술대상, 구의역 사고, 안철수, 세비, 여야원구성, 미세먼지, 고등어, 생리대, 이철희, 김성태, 새누리당, 반기문 UN 사무총장
	171회(2016. 06. 16)	국회 개원 연설, 친박,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신고양, 정무수석, 스위스 국민 투표, 민주주의, 롯데 압수수색, 김성태, 이철희, MB정부
	172회(2016. 06. 23)	1부 - 대우조선해양, 롯데, 새누리당 복당, 신공항, 홍기택, 산업은행, 언론사, 옥시, 영국 EU탈퇴 2부 - 유전자 검사, 유방암
	173회(2016. 06. 30)	1부 - 홍만표, 브렉시트, 영국, EU, 유럽연합, 전기가스 민영화, 서영교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김종인 2부 - 유전자, 인간게놈창조, 가타가
	174회(2016. 07. 07)	황제노역, 세월호 보도개입, 경찰의 두 얼굴,

		음주운전 실태, 국회특권
	175회(2016. 07. 14)	사드 배치 결정 논란,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논란, "민중은 개, 돼지" 망언 논란
	176회(2016. 07. 21)	보복 난폭 운전, 필리핀 공포 정치, 두테르테, 리쌍-세입자 분쟁 논란, 이재명 성남 시장 논란의 모든 것
	177회(2016. 07. 28)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프로야구 승부조작 논란, 전당대회의 모든 것
	178회(2016. 08. 04)	김영란법 합헌 결정 후폭풍, 힐러리 vs 트럼프, 여야 당권레이스 본격 개막, 우리들의 일그러진 직장
	179회(2016. 08. 11)	위클리 포토제닉, 사드배치 후폭풍, 여야 당대표 선거 대격돌, 상속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재벌들의 편법 상속, 폭스바겐 판매중지 파문
	180회(2016. 08. 18)	광복 71주년 기념식 대통령 경축사, 광복절특사 명단 발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가정용 전기 누진제 논란, 흡연 분쟁으로 인한 폭행 파문, 화제의 인물 김부겸 의원,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181회(2016. 08. 25)	우병우 수석 검찰내용 유출 파문, 살아남은 우병우 또다시 돌아온 조윤선, 영국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 망명,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 관련 사업에 이화여대 학생 vs 학교 갈등,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전격 분석
	182회(2016. 09. 01)	추미애 의원 압도적 당선,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초호화 접대 논란, 우병우-이석수 동시 압수 수색,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죽음, 내국인 카지노 개정안 발의, 지자체 혈세 낭비 논란, 기상청 오보 논란, 기피아 논란
	183회(2016. 09. 08)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이정현 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부적격 논란, 상하이 영사 발언,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박근혜 대통령 3개국 해외순방, 준엄사법 국회 통과
	184회(2016. 09. 15)	박대통령 공직자 선물 논란, 부장검사 스폰서 스

		캔들 파문, 추석특집 잠 룡들이 움직인다, 역대 최대 규모 북한 5차 핵 실험
김제동의 톡투유	44회(2016. 03. 06)	욕심
	45회(2016. 03. 13)	청춘
	46회(2016. 03. 20)	버리다
	47회(2016. 03. 27)	얼굴
	48회(2016. 04. 03)	물음표
	49회(2016. 04. 10)	두근두근
	50회(2016. 04. 17)	콤플렉스
	51회(2016. 04. 24)	학교
	52회(2016. 05. 01)	바람
	53회(2016. 05. 08)	대화
	54회(2016. 05. 15)	아버지
	55회(2016. 05. 22)	판짓
	56회(2016. 05. 29)	버스
	57회(2016. 06. 05)	싸움
	58회(2016. 06. 12)	목소리
	59회(2016. 06. 19)	자격
	60회(2016. 06. 26)	질투
	61회(2016. 07. 03)	텔레비전
	62회(2016. 07. 10)	소름
	63회(2016. 07. 17)	모험
	64회(2016. 07. 24)	더하기 빼기
	65회(2016. 07. 31)	기계
	66회(2016. 08. 07)	전화
	67회(2016. 08. 14)	뉴스
	68회(2016. 08. 21)	테러
	69회(2016. 08. 28)	아재줍마
	70회(2016. 09. 04)	재도전
	71회(2016. 09. 11)	취향
	72회(2016. 09. 18)	서울

<비정상회담>의 주제 끝에는 ‘비정상인가요?’라는 물음이 항상 뒤따라 붙었다. 정상(頂上)이 아니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정상(正常)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의 비정상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에 걸맞게 주제 뒤에 물음을 덧붙인 것이다. 위의 주제들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비정상(非頂上)인 사람들이 비정상(非正常)에 대해 논한다.

주제는 한국 출연자에 의해 소개되는데, 한국 출연자가 자신의 고민을 들고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고민을 받아 들고 나오기도 한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결국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출연자들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며,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주제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썰전>의 주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한 회에 여러 주제들이 제기되었으며, 빠르게 주제가 변화하였다. 주제는 정치·시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패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분석되었다. 156회부터 173회에 이르기까지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1부는 정치·시사, 2부는 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 뒤로는 1부, 2부의 구분 없이 정치·시사에 집중하면서 최신의 주제들을 통해 ‘뉴스 털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더 명확히 했다.

<김제동의 토틈유>의 주제는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키워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많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 키워드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라도 프로그램 내에서는 수용이 됐으며, 많은 청중들을 통해 키워드에 대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의

미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현 시대 상황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과 고민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시된 키워드는 단순했지만, 많은 청중들이 토크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연들로 프로그램이 채워졌다.

JTBC에서 밤 11시대에 방영되고 있는 토크쇼는 <비정상회담>, <썰전>, <김제동의 토티유>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이다. 3개의 프로그램 모두 '주제' 중심 토크쇼로, 토론 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다. 진행자는 모두 남성으로, 토론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는 시사 프로그램을 예능으로 승화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패널 또한 <김제동의 토티유>에 음악패널로 참여하는 3명의 여성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 패널로, 남성이 주가 되고 있었다.

기획의도에 있어 <비정상회담>은 '세계의 젊은 시선',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핫(Hot)한 안건을 놓고 펼치는 토론의 현장'이, <썰전>은 '이슈 리뷰 토크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김제동의 토티유>는 '생활시사 콘서트'가 표기되어 있다. 세 프로그램 모두 '시사'를 다루고 있었으며, 시사에 관한 각자의 '시각'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비정상회담>은 여러 문화의 외국인 패널이, <썰전>은 상반된 시각을 가진 전문가 패널이, <김제동의 토티유>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청중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진행자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서 시청자에게는 질문이 아닌 답변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하나의 주제에 관한 여러 시각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JTBC의 토크 프로그램들은 ‘다채로운 즐거움’이라는 방송사의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인물들의 다채로운 시각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토크쇼로 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5) MBN

다음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MBN의 심야 토크쇼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 23>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영횟수 (2016. 09. 18 기준)	프로그램 소개 (기획의도)	분류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목 23시 00분 (약 70분)	3회 (2016. 09. 01 ~)	대한민국 레전드급 코미디언들이 한자 리에 뭉쳤다!!! 응답 하라 코미디여~ 선, 후배 코미디언들의 살벌한 코미디 배틀 쇼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난무하는 콘 텐츠 속에 소외받고 있는 중장년세대, 이 름하여 영포티 (young 40's)세대들 을 위한 신개념 <코 미디 배틀>이 시작 된다! 선 후배 코미 디언들의 톡 쏘는 레전드 매치 유쾌하	예능

			고 흥미진진한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레디고~!	
아궁이	금 23시 00분 (약 90분)	179회 (2013. 03. 31 ~)	당신이 몰랐던 아주 궁금한 이야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과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친다! 정치, 경제, 연예, 사회 등 폭넓은 분야의 이야기를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쏠쏠한 재미, 알찬 정보를 맛볼 수 있는 신개념 스토리 쇼!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	토 23시 00분 (약 100분)	201회 (2012. 11. 17 ~)	수다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살면서 어디서든 누구나 마주치는 속 터지는 일들!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한 걸까? 정답은 NO! 주부 9단! 말발은 100단! 때로는 친구, 때로는 언니 같은 동치미 마담들이 속풀이로 답답한 가슴에 살얼음 동동	예능

			떡운 시원한 동치미를 선사한다!	
--	--	--	-------------------	--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는 개그맨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개그맨들끼리 팀을 이뤄 주제와 관련된 웃긴 에피소드를 풀어내고 방청객들로부터 투표를 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진행이 코미디 배틀을 펼치는 방식이지만, 개그맨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몸을 이용한 웃음이 아닌 말을 통해 웃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토크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미디 배틀은 토크가 중심이 되는 전반전과 콩트가 중심이 되는 후반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그맨들은 팀을 이뤄 전반전에는 3~4가지 정도의 주제에 따른 토크 배틀을 펼치고, 후반전에는 현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다룬 콩트를 진행한다. 100명의 방청객으로부터 ‘어느 팀이 더 많은 웃음을 주었느냐’에 따른 투표를 많이 받은 팀에게는 상품이 주어진다.

<아궁이>는 ‘아주 궁금한 이야기’의 줄임말로, 정치, 경제, 연예 등 여러 방면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한 회에 3가지 정도의 소재를 다루며,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이 출연해 뒷이야기를 풀어놓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패널 외에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MC의 질문에 따라 답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속풀이쇼 동치미>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중장년층의 패널과 MC들이 등장하며, 방청객 또한 중장년층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하나의 큰 주제로 한 회가 이루어지며,

3가지 정도의 소주제가 등장한다. 이 주제에 맞춰 패널들은 자신들의 경험, 혹은 주위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의견을 풀어놓는다.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본인들이 겪은 일화들을 통해 중장년층 여성들의 공감을 얻는다.

오프닝은 주제와 관련된 영상과 주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패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작되며, 주제에 관해 여성 패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풀어내면, 남성 패널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 반박하거나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MBN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24>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프로그램 명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강수정	MC, 아나운서	여	1977년생/ 40세(만 39세)	3
	임하룡	영화배우, 개그맨	남	1952년생/ 65세(만 64세)	
	송은이	MC, 개그맨	여	1973년생/ 44세(만 43세)	
아궁이	김경화	MC, 아나운서	여	1977년생/ 40세(만 38세)	2
	주영훈	작곡가, 가수	남	1969년생/ 48세(만 46세)	
속풀이쇼 동치미	박수홍	MC, 개그맨	남		2
	최은경	MC, 아나운서	여	1973년생/ 44세(만 43세)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는 2명의 여성 MC와 1명의 남성 MC로 MC진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강수정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전체적인 진행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일화를 쏟아내는 개그맨들 사이에서 다소 혼잡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하룡과 송은이는 패널로 출연하는 개그맨들의 팀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임하룡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개그맨들을, 송은이는 젊은 개그맨들을 담당하고 있다.

강수정은 타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봐온 경험이 있고,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엔터테이너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다. 임하룡과 송은이는 개그맨 출신으로 세 사람 모두 코미디 배틀을 통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적합한 진행자라고 할 수 있다. 임하룡은 정장을 입고 출연하며, 강수정과 송은이는 정장 느낌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에 임한다. 60대인 임하룡을 제외하면 두 MC 모두 40대다.

<아궁이>의 진행자는 여성 1명, 남성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인물 모두 40대다. 김경화는 최근(2016. 07. 22) 합류한 진행자로, 아나운서 출신이고, 주영훈은 타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은 경험이 많으며,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한 인물로 연예계의 비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두 MC는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제가 나오면 이야기를 덧붙이고, 게스트로 하여금 다른 답변을 유도하기도 한다.

두 인물 모두 연예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패널들의 말을 듣고 핵심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능숙하다. 차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진행 스타일에 알맞게 가벼운 정장차림을 하고 있다.

<속풀이쇼 동치미>의 진행자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홍은 개그맨 출신이지만 점잖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최은경은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두 인물 모두 MC로 활동한 경력이 많으며, 타 프로그램(MBC <해피타임>)에서 함께 오랫동안(2005 ~ 2014) 진행자로서 합을 맞춘 경험이 있다.

주로 부부, 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박수홍은 미혼 남성으로서, 최은경은 기혼 여성으로서 패널들과 소통한다. 패널들의 경험담으로 채워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그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또, 한 번에 12명의 패널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내고, 여러 패널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적절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수홍은 준정장을, 최은경은 화려한 복장을 주로 입으며, 전체적으로 밝은 표정과 말투로 진행한다.

다음은 MBN의 심야 토크쇼 패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25>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프로그램 명	패널	직업	성별	나이	수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이경애	개그맨	여	1964년생/ 53세(만 51세)	6
	홍록기	개그맨, 뮤지컬배우	남	1969년생/ 48세(만 47세)	
	강성범	개그맨	남	1974년생/ 43세(만 42세)	
	김영철	개그맨, MC	남	1974년생/ 43세(만 42세)	
	박나래	개그맨	여	1985년생/ 32세(만 31세)	

	박성광	개그맨, 가수	남	1981년생/ 36세(만 35세)	
아궁이	김갑수	시인, 평론가	남	1959년생/ 58세(만 57세)	4
	이동형	시사평론가, 작가	남		
	이기진	PD	남		
	안진용	신문기자	남		
속풀이쇼 동치미	양재진	의사	남		11
	이경제	한 의사	남		
	양소영	변호사	여		
	유인경	전 신문기사	여	1959년생/ 58세(만 56세)	
	최홍림	개그맨, 전 콜퍼	남	1965년생/ 52세(만 51세)	
	이혁재	MC, 개그맨	남	1973년생/ 44세(만 43세)	
	안선영	탤런트, 개그맨	여		
	이성미	MC, 개그맨	여	1959년생/ 58세(만 56세)	
	김응수	영화배우	남	1961년생/ 56세(만 55세)	
	김용림	탤런트	여	1940년생/ 77세(만 76세)	
	김미화	MC, 개그맨	여	1964년생/ 53세(만 52세)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의 패널은 모두 개그맨이다. MC를 제외하고 한 회에 8명이 출연하는데, 위 표의 6명 외에 2명의 게스트가 함께 한다. 고정 패널은 총 6명이며, 그 중 2명만이 여성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패널들이 임하룡과 팀을 이루고, 젊은 패널들이 송은이와 팀을 이뤄 주제와 관련된 일화들을 풀어놓으며 토크 배틀을 펼친다.

<아궁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패널은 총 4명이다. 녹화 시에는 4명의 패널 외에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여러 패널들이 함께 한다. 고정 패널 4명은 모두 남성으로, 평론가, 기자, PD가 본 직업이다. 정치, 경제, 연예계의 비화를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패널로서 적합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바탕으로 알게 된 내용을 풀어놓거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게스트들과 대화하며 그들로부터 답을 끌어낸다.

<속풀이쇼 동치미>의 패널은 11명이나, MC를 제외하면 보통 12명의 사람들이 한 회에 출연한다. 고정 패널 10명과 게스트 2명이 함께 하는 것이다. 토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패널들 중 연예인을 제외한 패널들의 본 직업은 변호사 또는 기자이며, 남성 패널들은 의사다.

주제와 관련된 여성 패널들의 에피소드와 의견을 얘기하면, 남성 패널들이 그 에피소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이나, 그 에피소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패널들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원래 자신의 직업을 토대로 토크에 참여한다.

이 중 이혁재와 안선영은 패널이지만 보조 MC의 역할을 맡고 있다. MC와 달리 토크에 활발히 참여하지만 토크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상황극을 진행한다거나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등 다른 패널들보다 많은 행동을 보인다.

복장은 각자의 개성에 맞춰져있으나 여성 패널들은 화려한 복장을, 남성 패널들은 간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음은 MBN의 심야 토크쇼의 구성을 정리한 표다.

<표 26>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명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서서	앉아서	육각형 무대	○	가운데	진행자의 양 옆	진행자의 양 옆	유	투표
아궁이	앉아서	앉아서	별장	□	가운데	양 옆	양 옆	무	없음
속풀이 쇼 동치미	앉아서	앉아서	원형 무대	□	오른편	양 옆, 가운데	양 옆, 가운데	유	호응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의 오프닝은 MC들이 무대 중앙에서 코미디 배틀을 하게 되는 패널들을 소개하고, 패널과 게스트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튜디오에는 흰색 육각형 모양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 바닥에는 검은 띠로 육각형 모양이 한 번 더 그려져 있다. 무대 배경은 파란색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밝게 꾸며져 있다.

오프닝이 끝난 후에는 출연진들이 바닥에 그려진 육각형을 선으로 각자의 의자에 앉은 상태로 녹화가 진행된다. 무대 중앙에는 MC진이 자리하고, 오른쪽에는 젊은 패널들이, 왼쪽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패널들이 위치한다.

무대 뒤편에는 육각형과 사다리꼴 모양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틀의 주제나 투표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무대 아래에는 100명의 방청객이 자리하고 있으며,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재밌었던 팀을 향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출연자들은 모두 가슴에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으며, 주제와 관련된 토크나 쿵트를 펼친다.

<아궁이>는 '당신이 몰랐던 아주 궁금한 이야기'라는 여성 MC의 말과 함께 시작한다. 영상을 통해 해당 회에서 다룰 주제를 알리면, 곧장 패널들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MC의 역할은 주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필요에 따라 이야기에 보충 설명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주로 패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세트장은 나무를 사용해 별장과 같이 제작되었고, 출연자들은 소파에 둘러 앉아 토크를 진행한다. 소품으로는 책과 화분, 나무탁자와 머그컵, 카펫 등을 배치해놓았다. 이외에도 스튜디오를 이루는 색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색(갈색, 붉은 색)으로, 시각적으로 훈훈한 느낌을 준다.

패널 모두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며, 이름표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

<속풀이쇼 동치미>는 하얀색의 동그란 원형 무대에서 진행된다. 출연자들은 무대에 동그렇게 둘러 앉아 있으며, 패널들은 모두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다. 이름표에는 이름과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 세트 뒤편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스크린은 주제나 토크의 키워드를 띄우는 식으로 활용된다. 보조 MC와 패널, 게스트는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으며 앞에는 개인용 탁자가 위치하고 있다. MC들은 다른 출연진들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탁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무대 중앙에는 여성 패널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마담'이다. 남성 패널들은 무대 왼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MC들은 오른편에, 방청객들은 무대 아래에 앉아있다. 방청객들은 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방식의 호응으로 방송의 현장감을 살린다.

다음은 MBN의 심야 토크쇼의 주제를 정리한 표다.

<표 27> MBN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MBN(2016. 03. 01 ~ 2016. 09. 18)		
프로그램 명	회차 (방영일)	주제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1회(2016. 09. 01)	
	2회(2016. 09. 08)	내가 웃는 게 웃는게 아니야 사이다 괴담 나, 이런 사람이야!!
	3회(2016. 09. 15)	두근두근, 처음이에요~! 지난 명절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한 장의 추억 편의 전쟁
아궁이	151회(2016. 03. 04)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작가, 김수현
	152회(2016. 03. 11)	베일에 싸인 이슬람
	153회(2016. 03. 18)	마이크의 황태자, 전설의 MC
	154회(2016. 03. 25)	짹하고 별 든 스타
	155회(2016. 04. 01)	대한민국은 <태양의 후예> 앓이
	156회(2016. 04. 08)	정권의 그림자 실세
	157회(2016. 04. 15)	알고 보니 돌싱, 혼자서도 잘 산다
	158회(2016. 04. 22)	사라진 미녀 스타
	159회(2016. 04. 29)	스타 위에 시어머니

	160회(2016. 05. 06)	스타보다 위대한 이름, 엄마
	161회(2016. 05. 13)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 정우성, 도지원, 김민종
	162회(2016. 05. 20)	가족의 비밀을 가진 스타
	163회(2016. 05. 27)	당신이 궁금한 미인의 비밀
	164회(2016. 06. 03)	간통죄 폐지, 그 후 1년
	165회(2016. 06. 10)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性) 스캔들
	166회(2016. 06. 17)	억압과 자유 사이 - 금지된 시간들
	167회(2016. 06. 24)	망가져서 뜬 스타
	168회(2016. 07. 01)	김민희 홍상수를 통해 본 이혼의 조건
	169회(2016. 07. 08)	법조계 비리 스캔들
	170회(2016. 07. 15)	사랑에 발등 찍힌 스타
	171회(2016. 07. 22)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들
	172회(2016. 07. 29)	감독과 여배우 사이
	173회(2016. 08. 05)	뜨거운 언니들
	174회(2016. 08. 12)	스타들의 뒤통은 고백
	175회(2016. 08. 19)	사고뭉치 남편들
	176회(2016. 08. 26)	스타들의 결혼 수난사
	177회(2016. 09. 02)	파란만장 여가수의 일생
	178회(2016. 09. 09)	췌, 스타의 연애 중
	179회(2016. 09. 16)	명품배우의 불량인생
속풀이쇼 동치미	173회(2016. 03. 05)	쓸모없는 당신
	174회(2016. 03. 12)	엄마와 여자 사이
	175회(2016. 03. 19)	참아야 해? 말아야 해?
	176회(2016. 03. 26)	애는 누가 키워?
	177회(2016. 04. 02)	언제 어른 되지?
	178회(2016. 04. 09)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179회(2016. 04. 16)	나도 바람 피우고 싶다
180회(2016. 04. 23)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181회(2016. 04. 30)	혼자가 살기 편하다
182회(2016. 05. 07)	가족인가 도둑인가
183회(2016. 05. 14)	돈이 있어야 예뻐진다?
184회(2016. 05. 21)	여자가 대세다
185회(2016. 05. 28)	속은 내가 바보다
186회(2016. 06. 04)	나도 연애하고 싶다
187회(2016. 06. 11)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188회(2016. 06. 18)	될 사람은 된다
189회(2016. 06. 25)	왜 나한테 안 미안해?
190회(2016. 07. 02)	처가가 봉이다?
191회(2016. 07. 09)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192회(2016. 07. 16)	나도 사표 내고 싶다
193회(2016. 07. 23)	자식이 내 얼굴이다?
194회(2016. 07. 30)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딴니?
195회(2016. 08. 06)	당신, 그거 기억 안나?
196회(2016. 08. 13)	취미가 밥 먹여 주나
197회(2016. 08. 20)	오늘도 이혼하고 싶다
198회(2016. 08. 27)	나도 집밥 먹고 싶다
199회(2016. 09. 03)	당신이랑 참 안 맞아
200회(2016. 09. 10)	우린 오래된 부부다
201회(2016. 09. 17)	왜 우리는 만나면 싸울까?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방영된 횟수가 적었다. 토크를 통한 ‘코미디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맞게 일화를 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제시되었고, 3회에서는 추석에 맞춰 명절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풀 수 있게끔 주제를 선정하였다.

<아궁이>는 최신 이슈보다는 과거의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보였다. 최신 이슈를 다루기도 하였지만, 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과거 인물들에 대해 돌아보며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연예계와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이었으며, 보통 하나의 주제에 3가지 정도의 소재로 토크를 진행했다.

<속풀이쇼 동치미>의 주제는 가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엄마와 여자 사이(174회)’,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딴니?(194회)’ 등 여성의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았다. 주제와 관련해 주로 여성 패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토크를 진행해 나갔으며, 전체적으로 주부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BN의 밤 11시대 심야 토크쇼는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아궁이>, <속풀이쇼 동치미>로 각각의 성격이 달랐다.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는 토크를 통해 웃음을, <아궁이>는 사건 탐색을, <속풀이쇼 동치미>는 공감을 추구했다.

각자의 목적은 달랐지만, 목표로 하는 시청층이 중장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는 기획의도에서 ‘영포티(young 40's) 세대들을 위한’, <속풀이쇼 동치미>는 ‘주부 9단’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출했고, <아궁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과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중 주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젊은 시청자보다는 중장년층을 노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진행자는 2명 이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었으며, 여성 출연자와

남성 출연자의 성비(12명:16명)가 비슷했다. ‘주제’에 대한 패널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6) 채널A

다음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채널A의 심야 토크쇼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 28>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영횟수 (2016. 09. 18 기준)	프로그램 소개 (기획의도)	분류
풍문으로 들었쇼	월 23시 00분 (약 90분)	48회 (2015. 10. 19 ~)	<풍문으로 들었쇼> 는 채널A에서 론칭 하는 첫 셀럽 토크 로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셀럽의 궁금증'을 현업에서 활동 중인 기자들과 제작진이 심층 취재 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 그동안 TV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더 팩트', '우먼센스' 등 취재력 있는 기자들 이 전격 출연해 '카 더라~'식의 토크가 아닌 '신뢰성'을 담 보한 생생하고 강한	예능

			토크로 풀어낸다. 여기에 셀럽을 대변하는 연예인 패널들이 기자의 취재분에 살을 붙이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토크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는 신개념 셀럽 밀착 토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 23시 00분 (약 90분)	248회 (2011. 12. 04 ~)	탈북자 2만 7천 명의 시대, 그들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탈북, 북송, 그리고 몇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착한 탈북 미녀들! 6.25 전쟁 이후 단절되어 있던 민족의 벽. 아직도 그들을 울리는 남한사회의 오해와 편견! 세계 최초, 방송 최초,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예능

<풍문으로 들었쇼>는 연예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셀럽(유명인)’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지만, 연예인에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연예계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연예인들과 연예부 기자들이 출연해 셀럽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위여부를 가리기도, 살을 덧붙이기도 한다.

오프닝은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MC의 멘트로 시작된다. 고정 패널들이 등장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패널이 자리를 비울 경우 게스트가 일일 패널로 등장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채널A의 개국과 동시에 출발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종편을 통틀어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한 출신 젊은 여성들이 출연해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며 그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북한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던 여성들이 등장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파들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오프닝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MC의 말과 함께 시작되며, 그전에 해당 회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이 제시되는 편이다. 공식 패널 외에 다양한 패널과 게스트가 함께 하는 편이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단체 토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채널A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29>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프로그램 명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	-----	----	----	----	---

풍문으로 들었쇼	이상민	연예기획자, 가수	남	1973년생/ 44세(만 43세)	2
	최여진	탤런트, 영화배우	여	1983년생/ 34세(만 33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석	MC, 개그맨	남	1971년생/ 46세(만 45세)	2
	박은혜	탤런트, 영화배우	여	1978년생/ 39세(만 38세)	

<풍문으로 들었쇼>의 진행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이상민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아온 바 있으며, 최여진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진행 경험이 많은 편이다.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가 연예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예계를 잘 아는 인물이 MC를 맡는 것이 적절하며, 이 둘은 본 직업이 연예기획자, 탤런트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또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진행진이 꾸려져 있다. 남성 진행자인 남희석은 전문 MC로서 진행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편이며, 진행을 맡은 모습이 대중에게 익숙한 방송인이다. 그에 반해 여성 진행자인 박은혜는 배우로서의 모습이 친숙한 연예인으로, 뷰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바 있지만 진행 경험이 많지는 않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남희석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지만, 여성 진행자는 교체된 바 있으며, 그중에서 박은혜는 3번째로 합류하게 된 MC다. 진행에 능숙한 진행자와 밝고 부드러운면서도 엉뚱한 모습의 진행자가 조합을 이뤄 노련함과 신선함을 다잡은 진행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다음은 채널A의 심야 토크쇼 패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30>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프로그램 명	패널	직업	성별	나이	수
		출신			
풍문으로 들었쇼	홍석천	탤런트, 영화배우	남	1971년생/ 46세(만 45세)	10
	스테파니	가수	여	1987년생/ 30세(만 29세)	
	김지민	개그맨	여	1984년생/ 33세(만 31세)	
	이준석	기업인, 정당인	남	1985년생/ 32세(만 31세)	
	최대웅	방송작가	남		
	곽정은	작가	여	1978년생/ 39세(만 37세)	
	박영진	작가	남		
	강일홍	언론인	남	1962년생/ 55세	
	하은정	기자	여		
	김묘성	기자	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신은하	함경북도 무산	여		11
	김아라	방송연예인	여	1991년생/ 26세(만 25세)	
		함경북도 회령			
	한송이	양강도 혜산	여		
	유현주	함경북도 청진	여		
	명성희	팝페라가수	여		
		평양			

	최주연	함경북도 청진	여		
	주찬양	함경북도 청진	여	1991년생/ 26세(만 24세)	
	윤아영	함경북도 회령	여		
	박현숙	양강도 혜산	여		
	박희순	강원도 원산	여		
	이연아	함경북도 연산	여		

<풍문으로 들었쇼>에는 총 10명의 고정 패널이 등장한다. 여성 5명과 남성 5명으로 성비율은 같다. 연예계의 비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알맞게 연예계에 관련된 인물들이 패널로 출연한다. 구성원으로는 현직 연예인인 인물도 있고, 방송작가와 기자도 있다. 주제에 관련해 각자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주제에 등장하는 타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패널은 11명이지만, MC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녹화에 참여하는 출연자들은 약 18명이다. 그 중 4명은 한국 연예인들로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는 보통 북한 출신 여성 패널 11명, 남성 패널 3명, 게스트 1명으로 구성된다. 공식 패널이라고 해서 매회 녹화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공식 패널로 소개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자주 얼굴을 비추는 패널이 있는 등 패널들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연예인 패널들은 주로 호응과 질문을 맡고 있으며, 북한 출신 패널과 게스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주제와 관련된 북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다음은 채널A의 심야 토크쇼의 구성을 정리한 표다.

<표 31>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명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풍문으로 들었쇼	앉아서	앉아서	지하실	□	가운데	탁자 양 옆	탁자 양 옆	무	없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앉아서	앉아서	마을	□	오른편	왼편, 가운데	왼편, 가운데	무	없음

<풍문으로 들었쇼>의 실제 녹화는 핀 마이크를 통해 이뤄지지만, 모든 패널들 앞에 소품으로 모형 마이크가 놓여 있다. 세트 뒤편은 대형 환풍기로 꾸며져 있고, MC진 뒤로는 선풍기 모형과 카메라 모형이 놓여 있다. 스튜디오 곳곳에는 녹슨 자전거 바퀴 같은 여러 잡동사니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 쪽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회색 톤을 배경으로 스튜디오가 제작되어 있으며, 살짝 어두운 조명을 사용해 마치 지하 창고 같은 느낌을 준다.

진행은 앉아서 이루어지며, 사정상 패널이 나오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게스트 없이 진행된다. 패널과 게스트는 가슴에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름표에는 이름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 패널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명시되어 있다. '비밀을 아는 남자 홍석천', '가요계의 돌직구녀 스테파니', '마당발 개그 여신 김지민', '정치계 의심꾼 이준석', '황금 예능작가 최대웅', '까칠한 칼럼니스트 곽정은', '글 쓰는 뇌섹남 박영진', '베테랑 기자 강일홍', '특종의 여왕 하은정', '기자계의 여신 김묘성'이 기재된 명칭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세트장은 마을과 같이 꾸며진 무대다. 모든 출연자들은 1인용 의자에 앉아 녹화에 참여하며, 패널들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름표는 동그라미와 네모, 두 가지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동그라미 이름표에는 이름과 출신지역이, 네모 이름표에는 특이사항(前 북한버스차장, 前 북한호텔안내원, 김정은 정권 탈북 등)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MC들은 오른편에 자리하며, 패널들이 앉는 자리는 두 구역과 2단으로 나뉘어져 배치되어 있다. 구역 사이에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으며, 이 길을 걸어 게스트들이 등장하게 된다. 패널들은 공식 패널과 비공식 패널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 앉는 편이나, 북한 관련 남성 패널들은 주로 중앙 오른편 위에 자리하고, 게스트는 그 아래 자리하는 편이다. 한국 연예인 패널들은 왼편에 자리하며, 그 뒤로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버스 정류장이 무대장치로 설치되어 있다.

다음은 채널A의 심야 토크쇼의 주제를 정리한 표다.

<표 32> 채널A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채널A(2016. 03. 01 ~ 2016. 09. 18)		
프로그램 명	회차 (방영일)	주제
풍문으로 들었쇼	21회(2016. 03. 07)	팜프파탈의 상징, 센 언니
	22회(2016. 03. 14)	사랑일까? 스폰서일까?!
	23회(2016. 03. 21)	사랑일까? 범죄일까?!
	24회(2016. 03. 28)	스타작가 & 스타 PD

	25회(2016. 04. 04)	차이나를 뒤흔든 한국스타
	26회(2016. 04. 14)	스타품질 시즌
	27회(2016. 04. 18)	사기 높에 빠진 스타들
	28회(2016. 04. 25)	다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29회(2016. 05. 02)	피할 수 없는 유혹, PPL
	30회(2016. 05. 09)	루머에 휩싸인 스타들
	31회(2016. 05. 16)	별들의 전쟁, 스타와 정치
	32회(2016. 05. 23)	수상한 스타
	33회(2016. 05. 30)	뜨거운 풍문
	34회(2016. 06. 06)	위기의 주부들
	35회(2016. 06. 13)	돈 냄새 맡은 스타들
	36회(2016. 06. 20)	스타의 숨겨진 가족사
	37회(2016. 06. 27)	스타의 조력자, 매니저
	38회(2016. 07. 04)	스타 이름의 비밀
	39회(2016. 07. 11)	스타들의 위험한 사랑
	40회(2016. 07. 18)	연예계 지독한 음모론
	41회(2016. 07. 25)	스타, 음악과 사생활 사이
	42회(2016. 08. 01)	연예계 괴담
	43회(2016. 08. 08)	결그룹 비하인드
	44회(2016. 08. 15)	스타 인생, 전반전 vs 후반전 옛날 스타가 뜬다
	45회(2016. 08. 22)	스타는 분쟁중 사드 후폭풍
	46회(2016. 08. 29)	연예계 굿 와이프
	47회(2016. 09. 05)	실검 1위를 휩쓴 연예계 핫! 이슈
	48회(2016. 09. 12)	논란이 되었던 스타의 컴백
이제 만나러 갑니다	220회(2016. 03. 06)	2016, 이만갑 새내기

	남한 정착기
221회(2016. 03. 13)	지금, 북한이 흔들린다! 개성공단 25시!
222회(2016. 03. 20)	2016, 북한 배급의 모든 것
223회(2016. 03. 27)	2016, 남북한 新 사랑과 전쟁
224회(2016. 04. 03)	대북제재 앞, 위기의 북 한
225회(2016. 04. 10)	북한 주민들을 중독시킨 2016, 신(新) 세뇌작전
226회(2016. 04. 17)	꽃피는 봄은 없다! 주민 들 울리는 북한의 봄!
227회(2016. 04. 24)	남조선을 정복하라! 북 한, 대남 전략!
228회(2016. 05. 01)	2016, 아찔한 남북한 부 부 스캔들!
229회(2016. 05. 08)	북한, 생존지대! 국경을 사수하라!
230회(2016. 05. 15)	김정은 시대, 무너지는 북한의 학교!
231회(2016. 05. 22)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 법칙의 두 얼굴!
232회(2016. 05. 29)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라! 나는 북한 돌격대다!
233회(2016. 06. 05)	특종! 2016 북한, 자본주 의 충격사건!
234회(2016. 06. 12)	나는 자랑스러운 탈북 1 호다!
235회(2016. 06. 19)	2016 북한, 위기의 바람 이 분다!
236회(2016. 06. 26)	핫이슈! 북한을 강타한 최신 영상!
237회(2016. 07. 03)	북한 간호사가 말하는 북 한 병원 충격 진실!
238회(2016. 07. 10)	2016 북한, 여름 생존법!

	239회(2016. 07. 17)	대북제재 이후, 벼랑 끝 북한!
	240회(2016. 07. 24)	2016 북한, 김정은 공포의 살생부
	241회(2016. 07. 31)	방송 최초! 탈북 브로커가 직접 밝히는 탈북 현장!
	242회(2016. 08. 07)	2016 리우, 우리는 하나! 북한 스포츠 완전 정복!
	243회(2016. 08. 14)	북한을 지배하는 검은 힘, 김정은의 절대 집착!
	244회(2016. 08. 21)	2016, 탈북 새내기의 두근두근 첫 경험!!
	245회(2016. 08. 28)	2016 추락하는 북한, 배신의 시대!
	246회(2016. 09. 04)	북한, 장사의 신(神)
	247회(2016. 09. 11)	충격폭로!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
	248회(2016. 09. 18)	2016 추석특집 이만갑 가족대잔치!

<풍문으로 들었쇼>의 주제는 연예계와 관련된 최신 이슈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예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된 MBN <아궁이>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아궁이>가 과거 이슈를 주로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 비해 비교적 최근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차이점이 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나 북한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잡아 다루고 있다. 북한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제에 반영되어 드러나며, 북한의 실생활과 탈북과정 등을 다루면서 북한에 관한 비판적인 어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채널A에서 밤 11시대 방영되는 토크쇼로는 <풍문으로 들었쇼>와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있다. 성격이 비슷한 타 프로그램들은 주제와 관련된 게스트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풍문으로 들었쇼>는 고정된 패널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이야기가 채워진다. 같은 시간대 타 프로그램들 중 유일하게 연예계에 관한 이야기만 다룬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출연자들의 성비는 균등하며, 출연자 모두 연예계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튜디오 자체가 어둡게 조성되어 있으며,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마치 뒷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여성 출연자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스튜디오가 하나의 마을처럼 꾸며져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북한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울한 느낌이 스며들지 않게 밝은 표정과 소품으로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영상자료들이 자주 화면을 채우며, 필요에 따라 북한 제품을 스튜디오에 직접 들고 나오기도 한다.

(7) TV조선

다음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조선의 심야 토크쇼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 33>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영횟수	프로그램 소개	분류
-------	------	------	---------	----

		(2016. 09. 18 기준)	(기획의도)	
강적들	수 23시 00분 (약 90분)	148회 (2013. 10. 23 ~)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 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 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 코드 가 맞지 않는 강적 들이 뭉쳤다! 고품 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센 캐릭터들의 아주 주관적 현상 분석 강적들의 시선을 따 라가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예능
모란봉클럽	토 23시 00분 (약 90분)	53회 (2015. 09. 12 ~)	현재 남한에서 가장 '독한' 사연과 가장 ' 흥미로운' 시선을 가 지고 있는 탈북 미 남 미녀들. 세상의 끝과도 같았던 북한 땅에서 남한으로 넘 어온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인 생을 살고 있을까? 탈북미남미녀들의 버라이어티한 '한반 도 표류기'가 토크로 꽃피는 프로그램	예능

<강적들>은 프로그램 기획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사'에 관련된 쇼다.

여러 명의 패널이 원탁에 둘러앉아 현 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1부에서는 주제에 관해 패널들이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토크가 이뤄지며, 2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게스트가 등장해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나와 시사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모란봉클럽>은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엿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북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에서의 일상, 정치, 우리나라에 오기 위한 여정 등을 풀어낸다. 기존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북한에서의 지난 삶과 더불어 탈북자들의 시선으로 본 남한에서의 삶을 다룬다는 점이다.

'만나면 흥하리!', '남북공동 고민해소 토크쇼'라는 MC들의 말과 함께 시작을 알린다. '클럽'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에 알맞게 MC는 토크에 참여하는 패널들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TV조선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34>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프로그램 명	진행자	직업	성별	나이	수
강적들	박종진	MC, 전 방송기자	남	1967년생/ 50세(만 49세)	1
모란봉클럽	김성주	MC, 아나운서	남	1972년생/ 45세(만 44세)	2
	지상렬	개그맨, MC	남	1970년생/ 47세(만 45세)	

<강적들>은 패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토크 프로그램으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패널들 사이에서 굳이 진행을 맡은 인물을 찾는다면 박종진이라고 할 수 있다. 토크를 함에 있어 패널들끼리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역할을 각자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진 또한 패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개중에서도 박종진이 주로 주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MC로 분류하였다.

박종진은 앵커이자, MBN의 여러 부장기자,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주제들을 분석함에 있어 배경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시사 분석 프로그램의 출연자로서 적합하다.

<모란봉클럽>의 MC는 김성주와 지상렬로, 둘 다 40대 남성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아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능숙한 편이다. 북한 생활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므로, 자칫하면 방송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으나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이를 상쇄시킨다. 출연자 또한 북한 출신의 일반인들이 대다수로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쓰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아나운서 출신인 김성주가 단어를 적절하게 고쳐주거나, 북한 말을 대한민국 말로 바꿔주고, 개그맨 출신인 지상렬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농담을 던지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출연자에게 다가감으로써,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은 TV조선의 심야 토크쇼 패널의 특성을 정리한 표다.

<표 35>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패널 특성

프로그램 명	패널	직업	성별	나이	수
강적들	이봉규	시사평론가, 대학교수	남	1958년생/ 59세	6
	김갑수	시인, 평론가	남	1959년생/ 58세(만 57세)	
	함익병	의사	남		
	김성경	방송인, 아나운서	여	1972년생/ 45세(만 44세)	
	강민구	변호사	남		
	이준석	기업인, 정당인	남	1985년생/ 32세(만 31세)	
모란봉클럽					

<강적들>에는 6명의 패널이 고정적으로 출연한다. 패널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와 관련된 경력들이 있는 인물들로 1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자체가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정해진 방법이나 순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자가 패널이자 MC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함익병은 의사로서의 소견이 필요한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강민구는 주로 법적 소견을 밝힌다.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실제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주제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당의 분위기를 알린다. 김성경은 아나운서이자 유일한 여성 패널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편이며, 김갑수와 이봉규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2부에서는 게스트들이 등장하는데, 게스트 또한 시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다.

<모란봉클럽>은 북한 여성들이 패널로 등장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되는 고정 패널은 없다. 패널들은 북한 출신의 일반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패널이라고 보기보다는 반고정 게스트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 프로그램 주제에 맞게 게스트들이 출연을 하게 되며, 게스트의 수도 다양하다.

북한 출신 사람들 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게스트로 출연을 하며, 주제에 따라 북한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비교하고 궁금한 점을 서로 물어보는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음은 TV조선의 심야 토크쇼의 구성을 정리한 표다.

<표 36>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명	오프닝 자세	진행 자세	스튜디오 구조	자리 구조	진행자 위치	패널 위치	게스트 위치	방청객 유무	방청객 참여
강적들	앉아서	앉아서	암실/육각형 무대	○	가운데	양 옆	패널 사이	무	없음
모란봉클럽	앉아서	앉아서	카페 외부	○	가운데	양 옆	양 옆	무	없음

<강적들>은 암실 속 빛이 나는 육각형의 무대 위 원형 탁자 속에서 녹화가 이루어진다. 출연자들은 원형 탁자에 둘러 앉아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후에 등장하는 게스트는 패널 사이에 자리하게 된다.

<모란봉클럽>은 패널들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며, 이름표에는 이름과 함께 출신 지역이 기재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출연자들은 앉은 채로 등장한다.

녹화가 진행되는 스튜디오는 천장이 상당히 높게 제작되어 있으며 샹들리에가 달려 있다. 세트장 전체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의 외벽과 같은 느낌을 주며,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소품으로는 책과 화분이 사용되었으며, 패널들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는 작은 탁자들이 놓여 있다.

MC들이 중앙에 자리하며, 다른 출연자들은 넓은 ㄷ자 형태로 둘러 앉아 있다. 마주보고 있는 패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공간을 활용해 출연자들이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TV조선의 심야 토크쇼의 주제를 정리한 표다.

<표 37> TV조선 심야 토크 프로그램 주제

TV조선(2016. 03. 01 ~ 2016. 09. 18)		
프로그램 명	회차 (방영일)	주제
강적들	121회(2016. 03. 02)	대한민국 황태자들의 우아한 밀실
	122회(2016. 03. 09)	19대 국회 성적표
	123회(2016. 03. 16)	여의도 막말 잔혹사
	124회(2016. 03. 23)	미술계를 주름잡는 사모님
	125회(2016. 03. 30)	공천 칼자루, 그 후
	126회(2016. 04. 06)	20대 총선 격전지의 승자는?

	127회(2016. 04. 20)	총선, 후폭풍은 계속된다
	128회(2016. 04. 27)	3당 시대 개막, 잠룡들의 대권전쟁 시작!
	129회(2016. 05. 04)	박근혜 정부 3년, 비상구는 있다?
	130회(2016. 05. 11)	이제는 대선! 문제는 40대다!
	131회(2016. 05. 18)	법조계 비리 폭로전 무법도시
	132회(2016. 05. 25)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
	133회(2016. 06. 01)	욕망의 남자들
	134회(2016. 06. 08)	지하철, 다음 역은 <매피아>역입니다
	135회(2016. 06. 15)	섬마을에 악마들이 산다
	136회(2016. 06. 22)	누가 재벌가를 혼드는가?
	137회(2016. 06. 29)	아가씨와 조폭 건달들
	138회(2016. 07. 06)	금배지 가진 자의 특권, 씨족 국회!
	139회(2016. 07. 13)	검찰의 우환
	140회(2016. 07. 20)	‘돈맛’의 욕망 늪에 빠진 검사의 추락
	141회(2016. 07. 27)	벼랑 끝에 두 남자
	142회(2016. 08. 03)	비밀은 없다! 사방의 적
	143회(2016. 08. 10)	위기의 표적들
	144회(2016. 08. 17)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전기요금 폭탄
	145회(2016. 08. 24)	북한 금수저의 귀순 전쟁
	146회(2016. 08. 31)	2인자의 죽음
	147회(2016. 09. 07)	비운의 황태자들
	148회(2016. 09. 14)	사기 왕국 이회진을 털어라!
모란봉클럽	25회(2016. 03. 05)	2016 북한 여군의 일급

	비밀
26회(2016. 03. 12)	개성공단 폐쇄 그 뒷이야기
27회(2016. 03. 19)	폭풍 재능을 보여주마! 모란봉 갓 탈랜트
28회(2016. 03. 26)	서울의 봄 vs 평양의 봄
29회(2016. 04. 02)	브로커에서 하나원까지 특별한 가족 스토리
30회(2016. 04. 09)	독재국가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
31회(2016. 04. 16)	놀라운 북한의 [사]자 직업!
32회(2016. 04. 23)	북한판 태양의 후예, 최정예부대의 특급비밀!
33회(2016. 04. 30)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의 기네스
34회(2016. 05. 07)	가정의 달 특집 이산가족의 아리랑
35회(2016. 05. 14)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36회(2016. 05. 21)	외국인을 통해 듣는 평양 여행의 모든 것!
37회(2016. 05. 28)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제복은?
38회(2016. 06. 04)	여자라고 무시? NO! 북한의 여성파워!
39회(2016. 06. 11)	세계로 뻗어가는! 모란봉 글로벌 클럽!
40회(2016. 06. 18)	북한의 국경, 사선에서
41회(2016. 06. 25)	충격공개! 북한의 <완전 통제구역>
42회(2016. 07. 02)	북한의 엘리트 양성소
43회(2016. 07. 09)	탈북 사회를 빛낸 영웅들
44회(2016. 07. 16)	화끈한 19금 비밀스러운

		이벤트로 유혹!
	45회(2016. 07. 23)	북한 바다의 일급비밀
	46회(2016. 07. 30)	북한판 성공신화
	47회(2016. 08. 06)	북한의 3대 공포
	48회(2016. 08. 13)	<부부특집> 사랑의 국경 탈출기
	49회(2016. 08. 20)	북한군 엘리트 전격해부
	50회(2016. 08. 27)	중년의 결혼과 운명
	51회(2016. 09. 03)	남북공동 고민해소 <자식이 뭐길래>
	52회(2016. 09. 10)	남북한 사모님들의 <돈보다 뭘이 중헌디>
	53회(2016. 09. 17)	만나면 흥하리! 남북한 예체능 한마당

<강적들>의 주제는 최근 정치·시사 이슈들로 꾸려져 있었다. 정치·시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JTBC의 <썰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명의 패널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썰전>과 달리 다양한 패널들과 비교적 가볍게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썰전>과 마찬가지로 최신 이슈들을 반영해서 주제를 구성함으로써, 뉴스와 동떨어지지 않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모란봉클럽>은 심야 시간대 유일하게 ‘북한’과 관련된 주제들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소재들을 북한과 엮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게 주제를 만들었으며, 패널들은 이에 충실하게 주제와 관련된 북한 이야기들을 풀어냄으로써 프로그램이 채워졌다.

TV조선에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는 <강적들>과

<모란봉클럽>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전문 MC를 진행자로 내세우고 있으며, 진행자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패널이 출연하기는 하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적들>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란봉클럽>은 탈북자들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4. 종편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의 변화

(1) 토크쇼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통 토크쇼의 몰락’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자와 출연자 간 1:1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토크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다대다 방식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인물의 인생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갔던 정통 토크쇼는 쏟아지는 변형 토크쇼들 사이에서 포맷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바꾸지 않은 채 맥락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고 시청률에 대한 경쟁열기가 뜨거워지자 결국 KBS에서 방송되었던 <김승우의 승승장구>(2010. 02. 02 ~ 2013. 01. 15)를 비롯해 MBC의 <황금어장 무릎팍도사>(2007. 01. 31 ~ 2011. 10. 12, 2012.11.29 ~ 2013.08.22), SBS의 <힐링캠프>(2011. 07. 18 ~ 2016. 02. 01) 등 건재하던 지상파의 정통 토크쇼들이 시청률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지상파인 KBS에서 <해피투게더 3>, MBC에서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토크쇼가 여전히 제작·편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출연해 단순 근황이나 짧은 일화, 작품 홍보에 그치는 등으로 한 인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전보다 더 ‘명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토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었다. KBS에서는 보편적인 시청자 층을 확보하기 위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었고, MBC에서는 KBS보다는 자극적이고, 독설적인 토크 프로그램으로 신선함을 원하는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었다. 종합편성채널들은 시청자 층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경향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JTBC는 시사적인 토크 프로그램들로 시사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비정상회담>은 출연자와 주제 모두 청·장년층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썰전>은 <비정상회담>보다 더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로 정치에 관해 깊게 파고들었으며, 뉴스에서 다루지는 사건들을 더 자세하게 파헤친다는 점에서 뉴스 시청자들을 자연스레 프로그램으로 끌어왔다. <김제동의 토틀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더불어 방송이 아닌 토크 콘서트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방청객들의 토크로 넓은 시청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MBN은 옛날 코미디언의 개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주부들의 이야기들을 토크 소재로 삼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면서 중장년층을 공략했다. 채널A는 주 시청층이 중장년층인데, 연예계 사건만을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인 <풍문으로 들었쇼>를 통해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젊은 탈북인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면서 다양한 시청층의 유입을 시도했다. TV조선은 <강적들>을 통해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모란봉클럽>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 탈북자, 혹은 북한 생활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을 주요 시청층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세분화된 주제와 다양한 인물들로 토크 프로그램은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편 출범 이후 토크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예능을 가장한 탐색적 프로그램’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농담과 우스갯소리로 포장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나 시사와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야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토크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JTBC의 <썰전>, TV조선의 <강적들>이 그 예며, JTBC의 <비정상회담>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토론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쇼’적 성격이 강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의 등장은 종편 채널 출범 이후 새로운 포맷이 개발되며 가능해졌다. 이는 정치·시사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 대중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토크쇼의 진행에 있어 영역의 구분이 없어졌다. 진행자가 게스트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던 이전의 토크쇼들과 달리 종편 출범 이후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의 구분 없이 게스트가 오히려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진행자는 여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풀며 토크에 참여하고 있었다. 혹은 패널과 패널끼리 질문을 하고 답하며 토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자는 그저 토크의 흐름이 산만해질 때 잠시 끼어들어 정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스타의 인생사를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고민을 듣고 나누며, 시청자에게 있어 공감을 끌어내

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진행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2) 출연진

출연진의 특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눈에 띈 것은 ‘여성 진행자의 부재’다. 분석한 13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진행자와 패널은 총 102명이었으나 그 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은 7명이었고, 29명은 패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토크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예능 프로그램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은 물론이고 출연에 있어서도 남성의 비율과 비중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성 진행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 방송사의 실정이다.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비율과 비중이 낮은 현상에 대해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흐름의 변화와는 달리, 방송에서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공고하게 남아있다"고 현 상황의 원인을 지적했다.¹¹⁾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여성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가졌으나 방송사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이승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종합편성채널 등이 등장하며 채널이 많아졌고, 그만큼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방송사는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에 두각을 드러내던 남성 예능인 캐스팅에 열중했다

11) 구보라(2016). '여전히' 여성 진행자 없는 예능의 시대 [위클리포커스] '검증된 남성 예능인' 논리, 기울어진 운동장의 공고화. PD저널, 2016. 11. 02,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09>

"며 "그 결과 남성 진행자들은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여성 연예인들보다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¹²⁾

채널 시장의 경쟁이 높아지자 방송사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방송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남성 연예인들을 기용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로써 남성 진행자들은 더 많은 경력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여성 연예인들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으로 보이는 성 이미지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토크 프로그램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남성이 독점을 하게 되면 한 성별의 의견만을 제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성 진행자와 패널, 게스트들이 출연해 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토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편 출범 이후 토크쇼 출연자에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출연’이다. 이전에도 집단 토크 형식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제는 집단 토크 외에 단독으로 진행되는 토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여러 진행자들과 한 명의 게스트, 혹은 한 명의 진행자와 여러 게스트들로 구성되는 집단 토크를 넘어서, 여러 진행자와 여러 게스트, 여기에 여러 패널들이 함께 토크를 하는 ‘떼토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프로그램의 출연진에 있어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아예 다른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패널들을 중재하는 사회자와 주

12) 구보라(2016). 위의 기사

제와 관련된 직종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패널의 구성에서 나타난다.¹³⁾ 이제까지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정보의 전달과 해석은 전통적으로 기자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는 기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의 패널들이 이슈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렇듯 출연진이 다양화됨으로써, 시청자들은 전문가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쉽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크 프로그램의 예능화가 지나쳐 출연자들이 앞 다퉈 자극적인 사연을 쏟아 내거나, 방송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연을 과장하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들을 한다는 문제도 있다.

‘시청자의 등장’ 또한 종편 출범 이후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평범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선정해 토크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없어졌고, 스타들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다. 하지만 스타들은 한정되어 있었고, 미디어는 발전했으며 그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작진들은 신선함을 위해 다시 평범한 시청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종편 출범 이후 스타 토크쇼들이 사라져 가는데도 KBS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런 흐름을 빨리 읽은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청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JTBC <김제동의 토틀유>를 가장 바람직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온전히 방청객들의 사연과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3) 신선경·박주연(2016).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와 패널 다양성 분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7권 제2호, 178p

하지만 이렇듯 시청자의 참여가 주가 되는 프로그램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개인 홍보용으로 이용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사연으로 인해 조작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연자와 제작진과의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생긴 오해로 프로그램에 치명타를 입기도 한다. 그 외에도 녹화 중 방송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출연자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녹화 후 방송 출연을 철회하겠다는 출연자가 나타나기도 해 제작진에게는 제작에 있어서도, 방영 후에 있어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위험부담이 크지만,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3) 구성

토크쇼의 구성은 종편 채널 출범 이전보다 단순해진 편이었다. 다양한 코너로 스타들의 매력을 알아볼 수 있었던 2000년대와 달리 토크만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퀴즈나 게임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집중했으며, 2000년대에 등장한 버라이어티성 변형 토크쇼와는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 가까운 변형 토크쇼 포맷이 구성되었다. 그러다보니 진행자의 움직임이 덜해졌고, 출연자 또한 개인기나 장기자랑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방청객 또한 더욱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게 되었는데, 방청객이 프로그램에 자리하고 있다 해도 음향효과로 방청객들의 호응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방청객들은 토크가 잠깐 멈추는 사이 토크에 관한 반응을 투표로 대신한다거나 단순 방청으로 화면의 빈 곳을 채우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제동의 토틀유>는 방청객이 곧 출연자이며, 진행자가 곧 방청

객이었으므로 제외한다.

각 프로그램에 맞는 소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데, KBS와 MBC의 토크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JTBC는 각 프로그램에 맞게 <비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회의장 같은 스튜디오를, <썰전>은 암전이 된 스튜디오 속 삼각형의 탁자를, <김제동의 토틈유>는 매번 장소를 옮기되 아기자기한 화분과 인형을 사용해 매번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나 <썰전>이나 <비정상회담> 등 토론 형식의 토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과 소품(권투 글러브를 낀 채 맞서고 있는 두 패널의 모형 등)은 대립되는 패널 사이의 경쟁관계를 극대화하여 스포츠 경기처럼 보이게 했다. MBN은 주로 밝은 톤의 스튜디오를 구성했고, 채널 A의 <풍문으로 들었쇼>는 어두운 조명을 사용한 지하실로 스튜디오를 꾸며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마을과 같이 조성해 경쾌한 분위기로 꾸몄다. TV조선은 토론 프로그램인 <강적들>은 <썰전>과 마찬가지로 암실에서 진행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고, <모란봉클럽>에서는 밝은 스튜디오로 쾌활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체적으로 책상, 혹은 탁자가 소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전의 토크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소품으로 시청자와 출연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나, 종편 출범 이후 나타난 토론 프로그램이 접목된 토크쇼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소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제

종편 출범 이후, 토크 프로그램의 포맷이 변화하면서 토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야깃거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 변화로는 ‘인물이 아닌 주제로의 초점 이동’을 들 수 있다. 연예인이 중심이 되어 그들

의 사생활이나 작품 홍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토크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시사적 정보제공이나 교육적인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2000년대와 달리, 시사적 정보제공과 교육적 목적의 토크 프로그램들이 다시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지상파인 KBS와 MBC에서는 여전히 ‘인물’ 중심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인 JTBC와 MBN, 채널A, TV조선에서는 ‘주제’ 중심의 토크쇼가 방영되고 있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인물의 정보를 되새김질하듯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물어보는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있어 더 새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크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나 주제는 방송이 제작되는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부적 환경은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외부적 환경을 토크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편 출범 이전에 비해 토크 프로그램에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나타나고 있었다. 토크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상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최근의 화제를 주제로 선정하기가 쉽다는 특성이 있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 특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제작진은 주제에 따라 긴급 녹화에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촬영에 들어가기도 한다. 상황과 관련된 주제 선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이로써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과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가 화제가 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기술의 발달이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제작진을 뒷받침해줄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한 결과다.

토크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짧은 에피소드 형식의 토크가 선호’된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하나의 주제로 오래 이야기를 하

기 보다는 여러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 자신의 관심사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차 없이 채널을 돌려버린다. 따라서 제작진들은 다양한 성향의 시청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화제 전환이 빠른 편이다. 다양한 내용과 성격의 토크를 번갈아 제시하면서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발성 에피소드식 토크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기가 쉬워졌는데,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보고 프로그램에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의 수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얻으면,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계속해서 화제가 자주 바뀌는 짧은 형식의 토크로 프로그램의 포맷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다.

그 외에 토크 프로그램의 주제가 점점 자극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방송은 사회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방송에서 다루는 콘텐츠들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토크쇼의 주제가 바뀌었다는 건 사회에서 이야기 되는 주제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방송에서 사용 가능한 소재의 폭이 넓어졌으며, 전반적으로 표현이 과감해졌다.

시청자들은 수많은 자극들 속에서 무더졌고, 더 강한 자극을 받길 원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방송 프로그램도 점차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시청해 주지 않는다. 텔레비전 말고도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손만 뻗어도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는 오락거리는 넘쳐난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재미가 없는 프로그램은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며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묶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토크 프로그램은 시청자로 하여금 출연진들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며, 방송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착각을 일으킨다. 토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며, 토론 프로그램 또한 예능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진행자와 게스트들 사이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으로 인해 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5) 영상

토크 프로그램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면서 프로그램의 영상을 채우는 자막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자막의 크기도 커졌으며 위치 또한 다양해졌다. 여러 글씨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진이나 이모티콘, 인터넷 용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별로 사용하는 글씨체와 자주 쓰는 기호 등이 다르다보니 자막만 따로 구분하여 놓아도 어느 프로그램의 자막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자막에 독창성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또, 토크 프로그램 중 대부분이 이슈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다보니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을 설명하기에 용이하게 자료화면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진행자의 입으로 전했던 내용도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하면서 화면의 구성이 더 풍성해졌다.

5. 변화 요인

위에서 나타난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를 토대로, 토크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시대상황적 요인과 내용적 요인, 기술적 요인, 방송환경 요인

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1) 시대상황적 요인

앞선 연구들과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먼저 사회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토크 프로그램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토크 프로그램을 흔히 한 시대를 보여주는 창문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토크 프로그램이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시대 상황에 따른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는 사회 저명인사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한 교훈적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성장이 지상과제였던 당시 시대 분위기에 따라 단순한 재미와 오락보다는 감동을 통한 꿈과 용기 부여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¹⁴⁾ 또한 진행자로는 아나운서들이 활약했으며, 이들은 정장을 갖추 입고 딱딱한 진행방식을 고수했다. 이렇게 획일화된 진행자와 프로그램의 모습을 통해 독재정치로 인해 통제되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88올림픽 이후, 국내에 국제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며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떠오르고, 오락을 추구하게 되면서 화려한 외모와 말쑥씨를 가진 스타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스타 중심의 토크쇼들이 등장하게끔 만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스타 중심 토크쇼들이 더욱 크게 번창했고, 보다 더 오락을 추구하게 되면서 오락성을 띤 변형된 토크쇼들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할 때는 그 시기가 2012 대선과 맞물리며

14) 조준모(2008). 위의 논문, 59p

정치 토크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형식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북한 관련 토크쇼(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TV조선 <모란봉클럽>)가 등장한다거나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에 관해 논하는 토크 프로그램(JTBC <썰전>, TV조선<강적들>)이 제작 편성될 수 있는 것은 방송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시대적 상황이 변화했음을 뜻한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이후로는 특히나 많은 채널이 등장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발전하면서 시청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시청자로 하여금 보다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했고, 방송사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우면서 한 번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토크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이 정통 토크쇼의 몰락이다.

정통 토크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면 시청자에게는 그 한 회 전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매체가 그리 많지 않던 시절에는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등장하게 된 것이 이른바 ‘떼토크’라 불리는 ‘집단 토크’ 방식이다. 사실상 종편 출범 이전부터 집단 토크 형식은 지상파에서 계속해서 등장해왔지만, 종편 출범 이후부터 더욱 특징적으로 자리 잡았다. ‘종편 토크쇼’하면 ‘떼토크’가 자동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종편 토크쇼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인물이 한 프로그램의 한 회에 한 번에 출연하는 것은 A 출연자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지만 B 출연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채널을 멈

추는 시청자들을 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보니 자연스레 인물에 초점을 맞춘 토크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한 인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제 중심 토크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 다양한 자극 속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프로그램 앞에선 망설이지 않고 채널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사용하는 매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 TV가 재미없으면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기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청자들의 눈길을 확보하기 위해 토크 프로그램의 주제 또한 수시로 바뀐다. A 주제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기 전에 B 주제로 화제를 틀어버리거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킨다.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다루다 보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긴 힘들어졌지만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예능을 가장한 탐색적 프로그램이 상승세를 이루는 이유를 설명한다. 종편 출범 이후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기 보다는 현 주제에 대해 두루 훑어보고 넘어가는 탐색적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다. 재미가 없으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

토크 프로그램에서 여성 진행자의 부재 또한 사회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여성에 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 어려움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사회적 환경이 이렇다보니 방송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보니 당연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진행자 중에서는 더욱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여성이 방송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닌 남성의 보

조적인 역할만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므로, 제작자들은 여성 진행자를 키우기 위해 여성 방송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내용적 요인

토크 프로그램은 어떤 인물이 진행을 맡는가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기도 한다. 제작진은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성격을 가진 진행자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진행자에 맞춰 진행자의 성향에 알맞은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해내기도 한다. 이것의 증거로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바뀌면 소소하게 프로그램의 코너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KBS <해피투게더> 시리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메인 진행자가 어떤 이유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을 시, 그 진행자를 대신할만한 마땅한 진행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SBS <이홍렬쇼> - 진행자인 이홍렬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폐지/ SBS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 - 진행자인 이승연이 운전면허불법취득으로 인해 자숙에 들어가게 되면서 폐지)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진행자는 토크 프로그램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토크 프로그램의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진행자의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토크 프로그램에 있어 진행자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

종편 출범 이후부터의 진행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장르에 맞게 전형적인 스타일로 정해지기보다는 프로그램 장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이지만 색다른 조합으로 시선을 끌고,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들로 대체되었다. 출연자 또한 연예인 스타들로만 꾸러지기 보다는 식상함을 경계하고,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또, MC의 집단화는 여러 시청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적합하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물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MC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게스트 또한 토크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하지만, 매주 새롭게 등장하는 게스트에 맞게 그 회의 주제와 질문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제에 맞춰 게스트가 섭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게스트에 따라 하나의 주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게스트로 출연하는가, 혹은 전문가가, 스타 연예인이 출연하는가는 토크 프로그램의 기획에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너가 달라진다.

토크쇼의 초점이 ‘인물’에 맞춰져 있는가, ‘주제’에 맞춰져 있는가도 중요한 내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물 중심 토크쇼는 게스트의 인생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주제 중심 토크쇼는 게스트의 생각에 관한 질문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토크쇼를 구성하는 코너도 달라지고 출연자들의 자리 배치부터 스튜디오의 구조까지 바뀌게 된다.

(3) 기술적 요인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로 시청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있어 잠시라도 지루한 틈이 생기면 시청자들이 채널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방송 프

로그래밍의 포맷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일방적으로 방송을 받아들이기만 하던 시청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방송환경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청자들은 방송사에 자신의 의견을 보다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방송사는 시청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작·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시청자들의 요구와 가장 최근의 이슈를 프로그램에 담아내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점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시청자로 하여금 보고자 하는 내용을 방송국에 직접 전달하는 등 시청자세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기까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청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세분화 되었고, 다양해졌으며, 극도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방송 화면에서도 나타났는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토크 프로그램에는 다채로운 자막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자료화면이 제시되었다. 기술적인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시청자에게는 풍부한 볼거리가 제공되었고,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제작의도에 맞게 시청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들이 개발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주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TV외에도 다른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시간을 내서 TV로 보는 것보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쳐 지나가면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매체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가 더 신선하고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타들의 인물 탐구 형식의 토크 프로그램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생생한 음향효과와 음악 송출 기술이 발달되면서 90년대 토크쇼 무대에

함께 했던 악단들도 사라졌으며, 방청객들은 점차 자신들의 자리를 내줘야 했고, 최근에는 화면의 빈자리를 채우는 병풍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신에 시청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술 환경의 변화로 그들의 사연을 모으거나 찾아서 스튜디오에 초청하기에 편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우편이나 엽서 등으로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쳐야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시청자가 직접 출연을 신청하거나 제작진이 원하는 사연을 가진 일반인 출연자들을 찾아 연락하기에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모이게 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동안 많이 노출되어온 연예인들보다 참신함과 더불어 친근감을 주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편안한 분위기를 끌어내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작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4) 방송환경 요인

급속한 기술발전과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송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내고 있다. 다양한 매체가 탄생하였으며,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두고 경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가 토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획일화된 토크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었다. 이는 KBS와 MBC가 서로를 제외하면 굳이 경쟁할만한 방송사가 없었으며, 언론을 감시하던 정부로 인해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방송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SBS가 개국을 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88올림픽 이후 미국을 선망하는 대중문화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방송환경도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 SBS는 후발주자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토크 프로그램에 ‘재미’를 첨가했고, KBS와 MBC는 좁아진 방송 시장에 토크 프로그램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이는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90년대 후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각 방송사들은 화려한 스타들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제작하는 토크 프로그램에 비해 변화를 주기 위한 아이디어는 적었고, 이에 서로를 모방한 토크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더불어 타 매체들이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미디어 시장은 점점 더 좁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 했고, 토크 프로그램에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 시도를 하다 버라이어티성 토크쇼가 탄생하게 되었다. 토크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스타를 캐스팅 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졌고, 이는 전과 달리 스타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후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자, 방송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채널 브랜드화를 선택했다. 채널 브랜드는 방송사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자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정체성을 구축해 타 방송사와 구분을 짓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청 타깃을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잡기 위함이다.

이는 토크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송사로는 JTBC를 들 수 있다. JTBC의 토크 프로그램은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정치·시사·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며, 각 계각층의 인물을 토크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내세웠다. 이는 ‘다채로운 즐

거움'이라는 방송사의 슬로건답게 가지각색의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한번에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체가 풍성해짐에 따라 방송사들은 방송사 자체의 브랜드화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별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다양한 진행방식과 더불어 여러 소품들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토크 프로그램들은 각자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게 방석이나 화분을 통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녹스 부품과 어두운 조명 등을 통해 은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실에서 녹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방송 환경이 다채로워짐에 따라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인물이나, 아예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들을 방송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편 출범 이후 채널이 다양해짐으로써 방송의 출연 기회가 많아진 것과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진행자들은 대체로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었던 얼굴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가진 진행자가 아직은 많지 않고, 제작진들은 치열한 시장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노선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익숙한 진행자들의 모습은 종편이 출범할 때 지상파의 제작진들이 대거 종편 채널로 이동하면서 생긴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잘 아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검증이 된 진행자를 데려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토크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고 있지만, 비교적 비슷하면서 단순한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요약

텔레비전 토크쇼는 현실을 재현해 내는 힘이 강하며, 사회의 공론장 기능을 비롯해 교육의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꾸준히 제작되어왔다. 특히나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보다 당시의 사회상을 많이 반영하는 특성을 가졌으며,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든 여러 인물들을 방송으로나마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구사해오고 있다. 이러한 토크 프로그램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여러 변화를 거쳐 왔는데, 시대별로 변화한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0년대 초반의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대부분 아나운서였고, 출연자 역시 일반인이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이었다. 토크쇼의 구성이 단순했으며 진행자의 진행 스타일은 다소 딱딱했다. 공익적이고 교양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게스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방식의 토크쇼가 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가서야 연예인 진행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재미와 오락적인 부분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이때 탄생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니윤 쇼>다. <자니윤 쇼> 이전에는 주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1:1로 대화를 나누는 대담적 성격이 강했다면, <자니윤 쇼>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토크 프로그램에 ‘쇼’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일

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SBS가 개국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서 객관성을 중시하던 1980년대와 달리 재치 있는 진행자가 선호되었다. 그러다보니 80년대에 비하면 확실히 아나운서 대신 연예인 진행자가 많이 등장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 토크쇼는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들이 유행했으며, 남성 개그맨들이 진행자로 주로 활동하였다. 그중에서도 SBS의 <이홍렬쇼>와 KBS의 <서세원쇼>가 토크 프로그램의 양대 산맥으로 활약했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 당시 토크쇼의 특징으로 하나를 더 들자면 스타 의존성이 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진행자와 스타 게스트에 기대려는 경향이 컸다.

2000년대의 토크쇼들은 기존 토크쇼에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 시도로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려 했고, 다대다 진행 방식을 채택하면서 한 인물에 대해 깊은 이야기보다는 일화 나열식의 토크 프로그램들이 발전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토크 프로그램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하지만 토크 프로그램이 방송사에서 편성되는 비율과 발전해온 과정에 비해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방송사별 심야 토크쇼의 현황과 종편 출범 이전과 이후 심야 토크쇼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심야 토크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토크 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러 시간대의 토크 프로그램 가운데 심야 시간대의 토크 프로그램을 선

정해 분석한 이유는 다른 오락 프로그램들보다 토크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출연진들의 대화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해 집중하기 쉬운 심야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므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방송되는 토크 프로그램들을 선정해 방송사별로 비교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한 편 이상 편성되는 밤 11시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토크쇼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 비교할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이다. 종편 출범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의 심야 토크쇼를 분석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와 <해피투게더 3>로, 두 프로그램 모두 출연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프로그램이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일반인을, <해피투게더 3>는 연예인 중심의 게스트 구성을 보였지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게스트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두 토크쇼 모두 ‘인물’ 중심 토크쇼로,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무난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이와 달리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진행자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으며, 게스트 또한 생소한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인물’ 중심 토크쇼였지만, 라디오의 구성방식을 가져와 토크에 음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오후 11시대 토크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JTBC에서 밤 11시대에 방영되고 있는 토크쇼는 <썰전>, <비정상회담>, <김제동의 토티유>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이었다. 3개의 프로그램 모두 ‘주제’ 중심 토크쇼로, 토론 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었고, ‘시사’를 다루고 있었다.

MBN의 밤 11시대 심야 토크쇼는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 <아궁이>, <속풀이쇼 동치미>로 <코미디 청백전 사이다>는 웃음을, <아궁이>는 사건 탐색을, <속풀이쇼 동치미>는 공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자의 목적은 달랐지만, 목표로 하는 시청층이 중장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채널A에서 밤 11시대 방영되는 토크쇼는 <풍문으로 들었쇼>와 <이제 만나러 갑니다>로, <풍문으로 들었쇼>는 같은 시간대 타 프로그램들 중 유일하게 연예계에 관한 이야기만 다룬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종편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종편 출범 이후 대세를 이룬 단체 토크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TV조선에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밤 11시대의 토크쇼는 <강적들>과 <모란봉클럽>으로, <강적들>은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모란봉클럽>은 북한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지상파 방송사는 ‘토크쇼’를, 종합편성채널은 ‘토론 프로그램에 가까운 토크쇼’를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매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출범 초반, 다양한 장르의 편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제작비의 압박 속에 토크 프로그램들을 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경쟁 속에 종합편성채널은 살아남기 위해서 오락성에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어 기존 토론 프로그램의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변형된 형태의 토론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었다.

본래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질문자와 조정자로서 전체적인 토론을 조정하고 주재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지만, 종합편성채널에서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 또한 패널과의 대화에 종종 참여하며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진행자의 역할이 토크쇼에서의 호스트 역할과 유사하게 변형된 것을 보여주며, 토론 프로그램에 토크쇼 형식이 많이 가미된 것을 의미하는 바다. 또한 기존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이 양자 간의 입장에서 대립의 날을 세웠다면, 종합편성채널의 토론 프로그램은 패널 사이에 공격성의 표출이 완화되었으며, 농담과 우스갯소리를 적절히 사용하며 부드럽게 흘러간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심야 토크쇼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정통 토크쇼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그 수가 대폭 줄기는 했지만, 지상파에서 간간히 명맥을 이어왔던 정통 토크쇼가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이후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모두 막을 내렸다.

그리고 전보다 더 명확한 시청층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좁아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토크 프로그램에 새로운 포맷이 개발되기도 했는데, 토론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했지만 ‘쇼’적 성격이 강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가벼우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프로그램에 제작되고 있었다.

토크쇼의 진행에 있어 영역의 구분이 없어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진행자와 패널, 게스트는 서로의 역할에 구분을 두지 않고 토크에 참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 변화 중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여성 진행자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물론이고 출연에 있어서도 남성의 비율과 비중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성 진행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는 종편 출범 이후 보다 안전한 노선을 선택하기 위해 기존에 검증된 남성 진행자들을 우선순위로 캐스팅하면서 벌어진 결과물이

다.

종편 출범 이후 토크쇼 출연자에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체 토크를 들 수 있는데, 진행자도 집단으로, 게스트도 집단으로 구성되어 대결을 연상시키는 토크를 풀어내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의 진행자와 패널의 등장과 시청자의 재등장도 눈여겨 볼만한 변화다.

종편 출범 이후, 토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야깃거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시사적 정보제공과 교육적 목적의 토크 프로그램들이 다시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주제’ 중심의 토크쇼들이 편성되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이로써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과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가 화제가 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제작진들은 다양한 성향의 시청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다양한 내용과 성격의 토크를 번갈아 제시하는 단발성 에피소드식 토크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은 점점 자극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는 것에 반해 토크쇼의 구성은 종편 채널 출범 이전보다 단순해진 편이었는데, 퀴즈나 게임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다보니 진행자와 출연자 또한 별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토크 프로그램의 영상은 보다 풍부하고 화려하게 변했는데, 변화에 있어서는 자막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제작진은 전보다 자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마다 각자의 독창적인 자막을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살피고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변화 요인을 시대상황적 요

인과 내용적 요인, 기술적 요인, 방송환경 요인으로 구분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크 프로그램은 시대적 분위기와 그 당시의 상황과 사건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에는 독재로 인해 통제되었던 토크쇼의 분위기도 엄숙하였으며, 진행자들은 딱딱하고 객관적인 진행방식을 고수하였다.

1990년대에는 88올림픽 이후, 국내 분위기가 전보다 부드럽게 풀리고, 문화에 관한 대중들의 갈망이 커지면서 화려한 형식의 토크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토크쇼들이 더욱 크게 변창했고, 매력적인 연예인들을 내세워 즐거움을 추구하는 변형된 토크쇼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할 시기에는 2012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함께하며, 정치 토크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탄생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장 큰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로는 1:1로 대화를 나누는 정통 토크쇼가 몰락하고 ‘떼토크’가 등장했다는 점과 ‘여성 진행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작은 자극에는 무더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과 아직 극복되지 않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방송에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토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영향력이 컸다. 토크 프로그램은 어떤 인물이 진행을 맡는가에 따라 성격은 물론이고 포맷까지 바뀔 정도로 진행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게스트 또한 토크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어떤 인물이 게스트로 출연하는가에 따라 그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물 중심 토크쇼인가, 주제 중심 토크쇼인가는 말할 것도 없이 토크 프로그램

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토크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기술적 요인을 언급할 수 있는데, 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방송사와 시청자 간 소통의 방법이 쉬워졌다. 이는 토크 프로그램에게 있어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끔 했고, 시청자들에게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토크쇼 프로그램에 시청자가 올린 질문이 등장하기도 하고,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코너가 신설되기도, 출연자가 결정되기는 등 시청자가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힘이 많아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방송 화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토크 프로그램은 화려하게 꾸며졌으며, 제작진의 의도에 맞춰 토크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구성했다. 또한 음향 효과가 다채로워지면서 방청객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었다.

마지막 토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송환경요인을 들 수 있는데, 방송환경의 변화가 토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는 방송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교적 단순하고 획일화된 토크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SBS가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88올림픽 이후 방송환경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물꼬를 트면서 토크 프로그램에 ‘재미’가 첨가되었다. 이는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진 90년대 후반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더불어 타 매체들이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미디어 시장은 점점 더 좁아졌고, 토크 프로그램에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 시도를 하다 변형 토크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자, 더욱 좁아진 입지 사이에서 방송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타 방송사와 차별화되는 토크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이로 인해 발전하게 된 중 하나가 정치 시사 토크쇼였다. 또한 프로그램별 이미지를 구축해 탄탄한 시청층을 형성하려했는데,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소품들을 사용하였다. 소품만 제시하여도 프로그램이 연상될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소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녹화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소품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얼굴의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것 또한 방송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방송 출연의 기회가 넓어진 것을 이유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채널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길 요구받다보니 기존의 방송 출연자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혹은 아예 방송 출연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물들이 프로그램에 속속히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행자들은 지상파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온 인물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일반 출연자들보다 진행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종편에서 새로운 내용의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도 지상파 토크 프로그램과 크게 진행 방식이나 구성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는 지상파 제작진들이 종편 채널로 이동해옴으로써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종편 채널이 신생 채널을 벗어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난한 것을 통해 완전히 안정기에 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이처럼 토크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토크 프로그램의 경향에 대해 알아보려 했고, 그 결과는 위와 같다. 토크 프로그램은 방송 개국 이후부터 꾸준히 제작·편성 되어 왔으며, 사회와 여러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작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제작자들은 토크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여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것

이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밤 11시대 심야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패널, 구성요인들의 현황과 방송사 간 특징을 분석한 것에 있을 것이다.

토크 프로그램이 방송사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전체 토크 프로그램을 분석했어야 마땅하나 밤 11시대의 토크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토크 프로그램의 경향에 대해선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본 연구의 결론은 토크 프로그램에 한정해 유효하고, 각 방송사의 방송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방송사에 일어난 변화와 각 방송사에서 추구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헌적인 접근과 추론만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 원인에 대해 단순 추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충분한 대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여러 방송 관계자와 토크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들의 인터뷰를 병행했다면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9월 18일까지 약 6개월에 이르는 기간이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점에서 토크 프로그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으나, 종합편성채널 출범 직후의 변화는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여타 케이블 방송의 토크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해보았다더라면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와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속 연구자에게 제언을 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토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특히나 토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는 더욱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작진, 진행자, 방송관계자들을 통해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은 분석기간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 토크 프로그램에 관한 거시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 논문

- 김연희(2013). 텔레비전 토크쇼의 문화적 함의 - <안녕하세요>, <무릎
팍 도사>, <힐링캠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
원 문화콘텐츠전공, 석사학위논문
- 서문식(2000).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전공, 석사학위논문
- 소현정(1996). “토론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 대한 해석적 연구 : KBS
1TV<생방송 심야토론 : 전화를 받습니다>사례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신선경·박주연(2016).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와 패널 다양성 분
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와사회』 제17권 제2
호, 171~195p
- 오미영(2014). “국내 오락 토크쇼 흐름과 소통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연구
: 자기노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14(7), 2014. 07, 70~82p
- 이금희(2012). “토크쇼의 상징적 자기완성 기능에 관한 연구 : KBS <아
침마당> '수요가족탐구' 중년여성 출연자 심층 인터뷰를 중
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 박사학
위논문
- 이선민(2014).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문화』 29권
2호, 2014. 06, 75~115p
- 이영수(2000). “TV 프로그램 장르별 진행자 특성이 진행자 및 프로그램

-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방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준복(2014). “한국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타난 대화 연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2010). “심야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장르 혼합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방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2004). “심야 토크쇼의 포맷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준모(2008). “시대 흐름에 따른 TV토크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KBS 토크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홍보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영목(1993). '문민시대'의 텔레비전 읽기 1.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사회와 언론』 제3호, 240~257p
- 표시영·유세경(2016). “채널 증가에 따른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다양성 변화 연구 : 종합편성 채널 개국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30(1), 2016. 01, 137~168p
- 한수연(2015).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개입시계열분석을 이용한 저녁종합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준식(2003).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설진아(2011). 『방송기획제작의 기초』 . 커뮤니케이션북스

동향/연구보고서

임동환(1993). 공영방송의 민족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KBS 한국방송
/ 방송문화연구, 5

인터넷 자료

강민정(2012. 06. 08). [TV돋보기]'안녕하세요'에 미끄럼틀이 있는 이유는?. 스포츠 한국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206/sp2012060808025694350.htm>

구보라(2016. 11. 02). '여전히' 여성 진행자 없는 예능의 시대 [위클리포커스] '검증된 남성 예능인' 논리, 기울어진 운동장의 공고화.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09>

안성모(2016. 09. 13). [201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 신뢰도 JTBC, 영향력 KBS.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7632>

A study on changes in the late-night talk show
after the launch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Jeong Hye Yoon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alk shows, a genre of TV programming constantly loved in the rapidly changing media market. Although broadcast stations have produced and programmed talk shows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operations, not enough studies were done to shed light on their importance. In keeping with the growing need for more research on talk programs, this study chronologically categorizes characteristics of talk shows to date, five years after the launch of the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with a focus on shows aired between 11 and 12 at night.

This study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1) What is the status of late-night talk shows on each channel?
- 2) Did the launch of the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bring about any

changes to the late-night talk shows?

3) What impacts the changes to the late-night talk shows?

In the early 1980s when talk programs first appeared on TV, most of them were formal, standardized and education-oriented. It was not until the mid-1980s when elements of entertainment were incorporated into the programming. This trend became rapidly popular in the 1990s with the emergence of star-dependent shows. In the 2000s, the scene was dominated by variety talk shows.

Today (as of 18 September 2016), KBS talk shows tend to deal with general issues while MBC has more music in its shows. JTBC centers on current affairs whereas MBN shows appear targeting middle-aged and senior viewers. Channel A focuses on entertainment issues while TV Chosun centers on politics and North Korea. The terrestrial stations tend to produce “people-centric” shows whereas the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gravitate toward “issue-centric” shows.

Since the launch of the general programming stations, the conventional style talk shows have been nowhere to be found anymore whereas exploratory programs, posing as entertainment, grew in number. Furthermore, issues chatted about on shows have grown more diverse in greater detail. Viewers’ roles and influence increased as well.

In terms of casting, there are few shows today that are hosted by a female MC. Most shows hold group talks with multiple panelists. Another big change is identified in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which is often

filled with either experts or total strangers to the issue at hand.

As to the subjects, today's shows tend to chat about one episode and quickly shift the focus to the next, rather than talking about one issue for an extended time. They provide prompt feedback on viewers' demands and hot issues and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the "fun" aspect of the show.

Their efforts are further aided by the captions and computer graphics of various styles, aimed at maximizing audio and visual effects on their viewers.

These changes are driven by multiple factors: social situation, content, technology and broadcasting environment. Talk shows have evolved to meet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are heavily influenced by who hosts the show, who the guest is and what is to be mainly discussed. Advances in media technology have transformed the way the talk programs are produced. Viewers' demands are reflected in the programming more promptly than ever. Amid the shrinking market in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broadcasters, the talk programs have undergone changes to their categorization from one genre to another and the composition of personnel on the show. Producers need to consider all these factors in programming future talk shows. Researchers need to continue their endeavor to study talk programs.

Keywords: Talk program, talk show, general programming channel, host, panel, late-night program